Weekly 공감

녹색은 생활이다

No.49
2010.02.24



대한민국의 질주를 기대하라

이상화·모태범 ‘올림픽둥이의 반란’

외신 기자들도 한국 原電에 반했다

‘영상혁명’ 한국 3D 현주소



반갑다 『든든학자금』

2010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출학자금 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걱정없이 -
-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
-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

이제, 등록금 걱정없이 꿈의 전원을 항상 켜두세요

www.kosaf.go.kr/DreamOn 검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대출대상 : 소득7분위(2009년 2학기 기준 연 소득인정액 4,839만원) 이하인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 대출금액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무상지원)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2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상환방법 :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교육과학기술부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

위기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진 2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돌아보면 뜻 깊은 순간이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온 국민의 열망을 안고 취임하였다. '컴도저'란 별명으로도 불린 기업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았다.

그러나 여건은 좋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무렵부터 세계경제에는 암운이 드리워졌다. 위태롭던 세계경제는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신청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는 한국에도 상륙했다. 급격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다. 이에 지난 2년 정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위기 이후 미래도 준비하는 투 트랙 전략에 온 힘을 다했다. 온 국민도 흔쾌히 마음을 모았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했다.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자리바꿈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이끄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 위상이 달라졌다. 전쟁으로 피폐한 역사를 딛고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국가로 변신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架橋)로서의 역할을 찾았다. 선진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에 귀를 기울였고, 후진국은 부존자원도 없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한국의 경제모델을 배우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앞만 바라보지 않았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는 있었지만, 회복의 온기가 가장 늦게 도달할 서민들에게 눈을 돌렸다. 보금자리주택, 든든 학자금, 미소금융, 가계통신비 인하 등 다양한 맞춤형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시행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이후도 대비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세계의 찬사를 받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4대강 살리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 종합개발, FTA 다각화와 첫 원전 수출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닦았다. 규제개혁, 지역상생발전, 공공부문 선진화,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민간부문의 자생력과 고용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사회갈등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올해에는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자 한다. 더 자랑스러운 나라, 더 많은 일자리, 더 편안한 국민, 더 일하는 정부를 목표로 매진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길, 출범 3년째의 길은 국민 모두와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 G

Weekly
2010.02.24
No.49(통권 150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금빛 절친'의 질주는 눈부셨다.
동계올림픽 최초의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 남녀 동반우승.
이상화·모태범 두 열혈 젊은이가
써내려간 '겨울의 전설'이
국운(國運)상승의 용틀임으로
이어지길 꿈꿔본다.



16



50

12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2.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국민과 함께한 2년 위기를 넘어 미래로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 닻을 올린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보듬고, 밖으로 국격을 높였으며, 녹색성장과 뉴미디어를 통해 미래의 동력을 키웠다.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꾼 지난 2년의 성과를 기틀로 삼아 '3년차'로 향하는 길은 모두가 염원하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다.


54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48호(2월 10/17일자) 기획특집 '2018 평창의 꿈, 밴쿠버에서 보여주자'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파이팅!"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따낸 메달의 색깔보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에 박수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무런 부상 없이 끝까지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_이정윤

"크로스컨트리나 루지처럼 인지도가 낮은 종목도 잘 소개돼 있어 이해를 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관심들이 계속 모여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두루두루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꼭 필요했던 경기 일정표! 출전 선수들의 이름까지 실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_박준석

"스키점프,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에 우리나라 선수가 뛴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만의 종목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려운 선구자, 개척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올림픽 때가 아니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_유은경

"김연아를 보호하라"

"모두 재미있게 읽었지만 특히 '연아야, 기분 좋게 점프해!' 기사에 눈길이 한참 머물렀습니다. 김연아는 우리 모두의 언니이고 누이이며 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스토커가 늘 그렇게 연아 양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많은 이들의 심려를 유발하고 있다니 참 걱정입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이없이 전소된 건 평소의 무관심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피겨계의 여왕 김연아를 한 치도 빈틈없이 철통경호로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_홍경석

48호 생활 상식 '우리 집 차례상, 그래서 이렇구나'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각 지방마다 차례상을 차리는 방식과 풍습이 왜 다른지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지역마다 다르고 차례 지내는 법도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조상들에게 경건하고 차분하게 차례를 올림으로써 국태민안과 화평을 기원하는 마음은 어디나 같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_장삼동

48호 정책 공감 '3기 어린이 법제관 700명 모집'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법제처가 발행하는 〈법나들이〉라는 월간지에서 어린이 법제관들의 의견을 만화로 보곤 했는데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집되어 멋진 활동들을 하고 있었군요. 어린이의 맑은 눈으로 바라본 법과 정책에 관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른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어린이 법제관들, 정말 파이팅입니다."_홍양희





알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부 정책이 '한눈에 쏙'

이제 정부 정책을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블로그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놓은 '미니공감' 위젯을 아이폰용 어플로 개발했다. '어플'은 응용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로 날씨, 교통 등 특정 기능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39개 중앙 부처 블로그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도 어플을 통해 정책 정보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부처 블로그는 바로 접속해 인터넷 화면과 똑같이 볼 수도 있다.

아이폰용 미니공감 어플은 무료로 제공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에게는 3월 3일까지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함께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온라인 이벤트 '2010 승리를 넘어 감동으로, 으라차차! 대한민국'에도 미니공감 어플을 통해 3월 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아이폰뿐만 아니라 윈도 모바일 기반 옴니아시리즈폰, 구글 기반 안드로이드폰 전용 어플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홍보과
Tel **02-3704-9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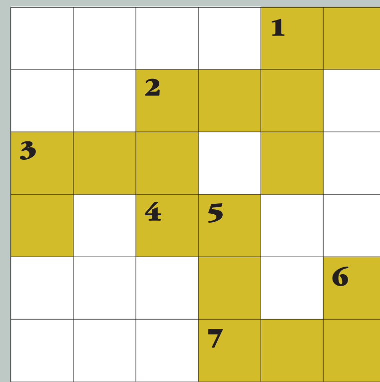
장기실업·실직 고령자 등 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드림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나 실직 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 중 담보나 보증 여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을 대신해 전세점포를 임차, 연 3퍼센트의 저리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빌려준다.

지원 규모는 최고 7천만원까지로 서울, 경인 등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심사 선발한다. 올해 총 74억원 규모로 실시되는 이 사업은 2월 16일~3월 5일, 7월 12일~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창업 희망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들의 창업 준비 노력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창업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kcomwel.or.kr, workdream.net



공감♥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3월 3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 로

1. 앞으로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나 그 계획을 이름.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사비, 재료, 구조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을 뜻하기도 하죠.
2. 은행이 거래하는 쪽의 의뢰에 따라 발행하는 신용보증 문서. 수입업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상업 ○○○과 해외여행자를 상대로 발행하는 여행 ○○○이 있죠. L/C(Letter of Credit).
3. 남대문의 다른 말. 우리나라 국보 1호. 지금 복원하고 있죠.
4. 긴 쇠붙이나 줄, 끈 따위를 구부리고 양 끝을 맞붙여 둥글거나 모나게 만든 물건. 문○○. 어떤 조직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되게 하는 하나하나의 구성 부분 또는 그 이음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7. 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로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로

1. 일어서서 어깨에 걸어 메고 치는 장구입니다.
2. 조선 시대에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 지금도 국민의 억울한 사연이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제도가 있죠.
3. 식사를 한 뒤에 마시죠. 구수한 게 맛이 있습니다.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푼 뒤에 물을 붓고 데운 물.
5.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력, 통솔력 등을 가리키는 외래어.
6.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손아랫사람을 부르는 말.

〈Weekly 공감〉 47호(2월 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취업 2 인도 3 노른자 4 세무사 7 베이비붐세대
세로 1 취득세 2 인자 3 노사 5 무말랭이 6 전문대

〈Weekly 공감〉 47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순탁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판리
김혜정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엄지연 ·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오정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전재구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라운지 GONGGAM KOREA

독자들의 쓴소리, 단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 공감



휴학생 김민석(26) 씨는 요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에 매진하고 있다. 시험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김씨는 〈Weekly 공감〉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는 "정책 정보 기사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만약 취업을 하게 되면 〈Weekly 공감〉 덕분일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Weekly 공감〉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평소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유용한 정책 기사들을 찾아 읽다가 〈Weekly 공감〉을 접하게 됐어요. 구독료도 없는 데다 한 주간 중요한 이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줘 시사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Weekly 공감〉을 보면서 좋았던 점은.

이번 호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특집을 다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 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잘 모르는 종목들에 관한 설명부터 유망한 선수들까지 소개해줘 더 재미있게 동계올림픽을 볼 수 있었어요. 한 주간의 이슈들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것이 〈Weekly 공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읽으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정책 정보지이다 보니 '정부의 정책' 소개에만 그 중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 어렵게 읽힐 때가 있어요. 다양한 독자 연령층을 위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거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한 기사들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면.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정'을 느낄 수 있는 미담 기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눔'과 '베풂'의 가치를 서로 나눴으면 합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송재하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 설날을 맞아 '우리 집 차례상, 그래서 이렇구나' 기사가 아주 유익했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차례 풍경과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지역별 차례문화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차례와 관련된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도 명절에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마음은 모두가 같지 않을까'란 생각도 했답니다.
2. 기획특집 '2018 평창의 꿈, 밴쿠버에서 보여주자'는 우리나라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준 기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밴쿠버 하늘에 태극기를 올리고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의 국력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3.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면 한글의 변형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언어습관은 어릴 적부터 바로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글과 말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사가 실렸으면 합니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

1. '거짓 미소금융을 조심하세요' 기사를 읽고 나니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살기 힘든 서민층을 위해 생겨난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를 비슷한 이름으로 사칭하는 중개업자나 대부업체들이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미소금융재단이 제시한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이대로 물러날 평창이 아니다'를 읽으면서 두 번이나 동계올림픽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실패한 평창이 이번에는 꼭 유치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유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힘찬 응원이 뒷받침됐으면 합니다.
3.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음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교육계나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2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국민과 함께한 2년, 위기를 넘어 미래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사진출처》2007~2008 예방접종 사진공모전 수상작

일반적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예방접종 사전예약 문의
예방접종 콜센터 1577-1280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588-3790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111
http://www.hira.or.kr

인터넷 사전예약 및 위탁의료기관 확인
http://nip.cdc.go.kr (예방접종도우미)

2월 19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전국민으로 확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접종일정	접종대상자	장소(비용)	예약방법
2월10일~	국가유공자	보건소(무료)	보건소 문의(신분증 지참)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치원, 초, 중, 고 교직원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 15,000원)	당일접종 가능여부 전화확인
	보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국가기반시설 종사자		
	50세 ~ 64세		
2월19일~ 3월6일	그 외 일반인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 15,000원)	당일접종 가능여부 전화확인 ※2.10일부터 온라인 사전예약도 가능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은 3월 6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므로 고위험군 및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만큼이나 중요한 '개인위생 수칙' 잘 지키기!!

■ 신종인플루엔자는 물론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은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으시고,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고른 영양섭취로 건강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김영일 광복회장

“3·1정신 계승이 국가 발전 이끌 원동력”

2010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뜻깊은 해다. 일제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백 주년이자, 일제의 침탈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불멸의 민족정신을 떨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백 주년이 되는 해다. 3·1절 91주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김영일 광복회장을 만나 독립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함께 돌아봤다.

김영일(84) 광복회장은 평북 정주 출신으로, 육군대학 총장과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 6월 제18대 광복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국내 진공작전을 위한 미국 OSS(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정보기관 특수훈련)에 참가한 애국지사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민족정기를 밝히는 일에 몸 사리지 않고 헌신하고 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8 독립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하느라 3박4일간 다녀왔습니다. 치사(致辭)를 하고 오찬회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건강하지요?



김영일 광복회장은 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올해는 경술국치(庚戌國恥) 1백 년,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3·1절의 감회가 남다를 듯한데요.

3·1 독립운동은 경술국치 10년째 되던 해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을 이루고자 우리 민족이 전 역량을 모아 일으킨 최대 사건이자, 민족 최대의 정신자산입니다. 일제의 극악한 탄압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비폭력, 인도주의로 맞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입증했습니다. 우리 민족만의 자랑거리인 3·1정신은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국가 상징인 태극기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열의 드높은 희생정신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가 국가의식을 가지는 것은 남북분단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1유공자 1회원’ 제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제도는 2008년 11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핵심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광복회가 결국 ‘시한부 단체’가 되기에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직계후손은 대수(代數)에 상관없이 직계후손 1명이 광복회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승계받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회에서는 지난해 연금 10퍼센트 헌납을 결의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지난해 3·1절 무렵 세계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국내 경제가 침체일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광복회는 위기에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10퍼센트 나눔 범국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1천7백65명이 참여해 6억


동아DB

광복회 주관으로 지난해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족대표 33인 및 3·1 독립운동 희생 선열 추념식.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영일 회장, 중앙이 김양 국가보훈처장이다.

5천7백38만1천4백80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성금의 많고 적음보다 이번 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광복회'로 거듭나게 됐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안중근 의사 순국 1백 년을 기념해 3월 24일 중국 뤼순감옥에서 추모식과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다음 날(25일)은 서울 효창공원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순국일(26일)에는 정부 주관 기념식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는 경술국치 1백 년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국선열 위패시설 확충사업인 용산가족공원 내 '순국선열 추모전' 기공식을 올해 안에 시행할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하실 말씀이 있다면.

광복회는 얼마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성명서와 결의문을 내고 무리한 진행에 대해 사과 받았습니다. 정부가 확실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해요.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 것은 단순히 연금수급을 받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란 지고지순한 정신적 가치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주체입니다. 국민들의 역사 인식에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제91주년 3·1절 –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독립운동 희생정신 · 임시정부 정통성 되새긴다

이번 3·1절에는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전국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된다. 우선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에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사흘간 태극기가 게양된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하며, 각급 학교와 군부대의 주 게양대 역시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한다.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은 3월 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이 더욱 권장된다.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가 시행(1997년)되고 있어 3·1절을 전후해 계속 달아도 된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사이버 세상에서도 벌어진다. 각급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태극기 팝업 배너를 띄우게 된다.

부처별 참여 계획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태극기 달기 운동 계획을 세우고 홍보하며 관보, 반상회보에 태극기 달기 홍보자료를 게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생들에게 국기교육을 실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과 방송 등에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 협조 요청을 하고 3·1절 전날 저녁과 당일 TV 자막방송을 하는 등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에 나선다.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정부와 국민에게 독립운동의 희생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으로 단련된 스물하나…

모태범·이상화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 석권



로이터

"서러웠어요. 세계선수권에서 1등을 했는데, 김연아 기사에 묻히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지난 2월 17일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상화(21)가 경기 후에 한 말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20)보다 2년 선배(이상화의 생일이 2월이어서 88년생들과 동기)인 이상화는 늘 김연아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자신 역시 세계 정상급 선수였지만 국내에선 한날 비인기 종목 선수였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화와 김연아의 '인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휘경여중 3학년이던 이상화는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5백미터에서 동메달을 땄고, 도장중 1학년이던 김연아는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차지하며 함께 주목을 받았다. 두 선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밴쿠버 올림픽에 대비해 집중 육성할 유망주로 선정돼 태릉선수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나란히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이상화는 "(두꺼운 허벅지는 피하고) 상체만 찍어주세요"라며 웃을 정도로 여유를 보였지만, 치아 교정기를 착용한 김연아는 오히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위상은 점점 달라졌다. 김연아가 그랑프리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세계 피겨 여왕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이상화도 2007년부터 월드컵 시리즈 5백미터를 4차례나 제패했다.

하지만 대접은 너무 차이가 났다. 김연아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이상화는 그렇지 못했다. 이상화의 부친 이우근 씨는 "누구는 신문,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상화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많이 속상했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상화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출국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스피드스케이팅을 알리고 싶다"는 말을 몇 차례 했다고 한다. 자신의 집 거실 달력의 2010년 2월 16일(현지시간)에 검은색 매직으로 '인생역전!'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상화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까지 5백미터 세계랭킹 3위였다. 충분히 금메달을 노릴 만한 실력이 있었다.

한국 빙상계 최대 경사 만든 '모터범' '금벅지'

이상화와 은석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지낸 모태범도 비슷한 케이스다. 2월 16일 그가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순간 빙상 담당 기자들은 무척 당혹해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올해 세계스프린터선수권(단거리인 5백미터와 1천미터 기록을 합산해서 순위를 가리는 대회) 종합 1위인 이규혁과 2위 이강석만을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모태범도 세간의 무관심에 서운함을 갖고 있었다. "지난번

눈부신 미래를 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에서 모태범과 이상화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 국가의 남녀 선수가 이 종목에서 동반 금메달을 따낸 것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다.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 때 기자들이 저한테는 거의 질문을 안 했죠. 좀 서럽긴 했지만 제게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더 자극이 됐어요. 부담 없이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죠."

그는 "원래 1천미터가 주 종목인데 5백미터는 1천미터를 타기 위한 속도훈련이라고 생각해 부담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모태범도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이번 시즌 국제빙상연맹(ISU) 1천미터 세계 랭킹에서 2위에 오른 선수였다. 이번 올림픽 1천미터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가 1위고, 이규혁이 3위다. 이강석은 월드컵 시리즈의 성적이 좋지 않아 랭킹 40위권에도 들지 못했고, 한국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기록이 나빠 1천미터에선 출전 기회도 잡지 못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규혁과 이강석만 챙겼지 모태범에겐 주목하지 않았다. 모태범은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섭섭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5백미터 금메달에 이어 1천미터 은메달을 딴 뒤에는 "서울에 돌아가서 승훈이(5천미터 은메달리스트 이승훈)와 거리를 걸어 다녀보자고 약속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지 궁금하다"고 말할 정도. 아직 갑작스런 인기가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하다.

비인기 종목 서러움에 '인생 역전' 오기 다져

사실 한국 스포츠는 지나치게 인기 종목에 집착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비인기 종목 선수는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올려도 반짝 관심을 받을 뿐 곧 뇌리에서 잊혀지곤 한다.

비인기 종목 스타 중 대표적인 선수가 핸드볼의 윤경신, 오성옥 등이다. 현재 국내 두산에서 뛰고 있는 윤경신은 핸드볼의 메이저리그라 할 수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2년 동안 활약하면서 2천7백90골을 성공시켜 통산 최다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득점왕만 7차례를 차지했고, 2001년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에도 뽑혔다. 그는 2008년 국내로 복귀하면서 "아직도 아스팔트 위에서 연습하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가 한국에서 핸드볼 선수를 시작한 이상 짊어져야 할 숙명"이라고 말했다.

국내 운동선수 중 하계올림픽 최다 출전 선수인 여자 핸드볼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오성옥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박물관에 전신 사진이 붙어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평범한 아줌마에 불과하다. "길을 다녀도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그녀의 말이다.



EPA

어느 날 갑자기 깜짝 스타가 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누구냐", "무명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선수는 그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세계 정상권에 근접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언론과 일반 팬들이 무관심했을 뿐이다. G

글 · 고석태(조선일보 스포츠레저부 차장)

"Surprising!"

외신 기자, 한국 원전시설을 가다


동아DB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시설을 견학했다. 기자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엄청난 규모의 시설과 첨단 장비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소식을 듣고도 '반신반의' 하던 그들의 표정은 이내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Surprising!" "出乎意外" "驚くべきだ"….

지난 2월 8~9일 '상주 외신 기자 원전시설 프레스투어'에 참여한 외신 기자들이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내뱉은 탄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이틀간 진행된 이 프레스투어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일본 등 9개국 26개 매체 상주 기자와 특파원 30명이 참가했다.

보안등급 '가'급인 원전시설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어서 외신 기자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였다. 러시아 종합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아르촘 산지예프 특파원은 "러시아에도 원전이 30기 정도 있지만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절차 때문에 직접 가본 적은 없다. 한국의 원전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이번 기회는 매우 유익할 것 같다"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투어 첫날인 2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김포공항을 떠나 3시간여 만에 도착한 곳은 부산시 기장군에 자리한 고리원자력발전소였다. 단일 매체가 원전시설 취재 요청을 해온 적은 많지만 이렇게 수십 개의 외국 매체,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한꺼번에 방문한 적은 처음이라 그런지 이곳 관계자들도 긴장한 모습이었다.


공감 코리아

외신 기자들은 한국형 원전의 장점과 안전성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이수일 대외협력실장은 "지난해 12월 26일의 UAE 원전 수주, 1월 13일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후 이곳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오늘은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수출 경쟁국 기자들도 온다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원전 4기가 가동 중인 고리 원전단지와 신고리 원전 1~4호기 건설 현황을 브리핑 받은 외신 기자들은 이 실장의 '걱정'대로 질문을 쏟아냈다.

미국 기자 '한국형 원전(APR1400)'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수일 실장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꾸준히 원전 기술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원전 가동 3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을 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 원전 이용률이 94퍼센트에 달할 만큼 어느 나라보다 효율이 높다.

특히 30명의 외신 기자 중 13명이나 참여한 일본 기자들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기에 UAE 원전을 수주할 수 있었는지'가 매우 궁금한 듯 '위험수위'를 넘을 듯 말 듯한 예리한 질문을 던졌다.

일본 기자 한국형 원전은 1백 퍼센트 국산인가.
이 실장 어떤 기술이든 완전한 국산화는 불가능하다. 원전도 휴대전화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수치로 따지자면 95퍼센트 정도 국산화돼 있다.
일본 기자 원전 설계부터 제작, 건설, 운영단계까지 어떤 기술과 부품들을 사용했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
이 실장 그런 내용은 어느 나라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수일 실장은 일본 기자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질문한 데 대해 "(한국의 UAE 원전 수주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지 않았



'개선형 한국표준형 원전' 인 부산 기장군 신고리 1, 2호기 원자로 건설 현장.

겠느냐"는 말로 에둘러 설명했다.

신고리 제1건설소 전망대에서 올해 말 본격적으로 가동될 1호기와 내년 말 가동 예정인 2호기 건설 현장을 내려다본 외신 기자들은 또 한 번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 발전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는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쓰인 바닷물이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바다로 방출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설치된 양식장이 화제가 됐다.

한국 원전 발전 속도에 놀라고 안전성에 또 놀라고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 건설 현장까지 둘러본 중국 〈신화통신〉의 반웨이 기자는 "원전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투어를 통해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일본 〈도쿄신문〉의 쓰키야마 에이지 특파원은 "일본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아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매립 등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경주가 방사성폐기물관리센터를 유치하게 된 배경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러시아의 산지예프 특파원도 "러시아 역시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사건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원전이나 폐기물 처리장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2월 9일 오전 울진원자력발전소에 들어선 외신 기자들은 한껏 기대에 차 있었다. 이곳에서는 발전소 내부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울진원자력발전소는 1988년 1호기가 발전을 시작한 이래 2005년까지 총 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기자들에게 공개된 원전은 2004년 7월부터 가동된 5호기다.

외신 기자들은 발전소 전체를 컨트롤하는 주제어실, 터빈과 발전기실, 원전 연료보관 시설 등을 둘러보며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다.

산지예프 특파원은 "한국의 UAE 원전 수주 기사는 쓰지 않았지만, 이번 프레스투어를 계기로 한국 원전과 관련한 종합기사를 다음 주 중 작성해 송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투어가 도움이 됐음을 시사했다.

미국 〈CBS〉 맹주석 기자(외신기자클럽 회장)는 "외신 기자들이 이번 투어로 한국 원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 원전에 대해 팩트(Fact)에 의거한,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G

글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 www.korea.kr

"원전 건설 '경쟁자' 한국을 주목하라"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자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원전 수주 승리'(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009. 12. 29), '국제 원자력발전 시장에 한국 본격적으로 참가'(일본 마이니치신문, 2009. 12. 30) 등의 제목으로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UAE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일본과 프랑스는 "패배한 일본은 향후의 원전 비즈니스를 위한 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일본 닛케이신문 2009. 12. 28), "이번 실패로 프랑스가 EPR(유럽형 가압경수로) 원전을 수출할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프랑스 르피가로 2009. 12. 29)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후에는 "원전 건설에 나선 한국을 이제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르피가로, 2010. 1. 14), "한국은 UAE 원전 수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르몽드, 2010. 1. 18)고 후속 보도하며 한국이 세계 원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음을 인정했다.

국민과 함께한 2년 위기를 넘어 미래로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기대 속에 닻을 올린 이명박 정부가 2월 25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기대는 한때 위기로 돌변했지만 정부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극복의 길로 들어섰다. 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보듬고, 밖으로 국격을 높였으며, 녹색성장과 뉴미디어를 통해 미래의 동력을 키웠다.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꾼 지난 2년의 성과를 기틀로 삼아 '3년차'로 향하는 길은 모두가 염원하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다.



일러스트 · 김영민

국가 백년대계 미래로 세계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연일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의 당당한 모습이 눈부시고, 그래서 온 국민은 행복하다. '체력은 국력'이라더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위기 극복에서부터 사상 최초의 해외 원전 수주까지 출범 2주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도 국운(國運)상승의 기류를 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상징하는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월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광장에서 열린 '2010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동아DB

"Surprise Korea(놀라운 한국)!"

2월 12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여태껏 찾지 못한 금맥을 캐내며 얼음판의 쾌거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 외국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다. 빙상 선진국조차 엄두를 못 내던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5백미터 동반 금메달' 대기록을 세운 한국에 대해 〈AP〉는 "한국이 빅 오벌(경기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무명(無名)이던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미국, 독일, 중국 등의 강력한 우승 후보를 잇따라 제치며 '반란'에 가까운 이변을 낳았다. 미국의 빙상영웅 에릭 하이든은 〈AP〉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선수들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TV 앞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만든 이 젊은이들은 당당하기까지 했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손가락을 치켜들고 웃고 울고 환호했다. 시상대에 키스를 하고, 애국가에 맞춰 몸을 흔들고, 감격스러움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신세대 선수들의 모습에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흐뭇하고 뿌듯했다.


동아DB

어디 메달을 따낸 이들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을 스키점프, 봅슬레이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이들의 선전을 우리의 국력 상승과 연결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민대 체육학부 이대택 교수는 "동계 스포츠는 시설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잘사는 나라여야 가능한 일이기에 몇몇 선진국에선 동계 스포츠에 더 열광한다. 밴쿠버에서의 성과는 국력 향상과 비례한다"고 분석했다.

어느 나라 선수들보다 근면하게 힘든 훈련을 소화해온 선수들, 무명선수들의 반란, 코너워크에 강한 한국 쇼트트랙의 장점을 스피드스케이팅에 접목한 '퓨전 훈련'과 같은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을 떠올리게 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3백여 명의 시민 대표와 1백8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의 취임에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국민도, 한국의 변화에 주목한 해외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스멀스멀 시작됐다. 마침내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 신청에 주가도 동반 추락했다. 한때 점보제트기에 비유되던 이 대통령의 경제공약 '747'은 하락하는 주가지수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그러나 위기도 빨리 찾아들던 한국은 그 하락의 되돌림 속도도 빨랐다. 2009년 1월 정부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 즉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포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로 경제위기 탈출의 모범이 됐다.

경제위기 극복·서민생활 살리기 중점 추진

기대와 위기 그리고 극복의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온 이명박 정부는 2년 동안 △경제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녹색성장 △미래준비 △국격 향상 △실용외교와 한반도 신평화 기반 구축 △특화와 상생의 지역발전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안전한 사회 등 12대 국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쌓았다.

지난 2년을 더듬으면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떠오른다.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 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을 비롯해 사상 최대의 치수사업인 4대강 살리기, 탄소 규제를 경제성장으로 국면 전환한 녹색성장…. 그뿐인가. 국제무대서도 빛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올 11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09년 7월),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09년 11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2009년 12월)에서 각광받은 녹색성장에 이어 2009년 말미를 장식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까지….

김동연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지난 2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미래준비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는 선진일류국가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국격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밴쿠버에서 한국의 첫 금메달 소식이 전해진 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도 경사스런 분위기였다. 이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지금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보면 우리 국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오는 2월 25일 이명박 정부는 3주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더불어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의 질주도 계속될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을 하고 있는 시민들.

친서민 중도실용

촘촘하게 따뜻하게… 서민과 더 가까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보육료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친서민'이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보금자리주택
14만6천 가구가 이룬 '내 집 마련의 꿈'

결혼 6년차인 손수미(33·서울 광진구 구의동)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생애 첫 특별공급 대상자로 4 대 1의 경쟁을 뚫고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에 당첨됐을 때 손 씨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청약저축을 계속 붓긴 했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없었다면 집 사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지방의 시댁에 내려가서 살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9백70만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1억원쯤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자도 싸게 해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손 씨의 경우처럼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한 데다 주변시세보다 싸고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약 방식이 적용되기에 인기가 높다.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백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4만6천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됐고, 올해는 18만 가구가 공급된다.

'든든 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스스로 벌어서 갚는 '희망 길라잡이'

모 대학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민(22) 씨는 1학년 때부터 학기마다 3백만~4백만원씩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동아DB

하지만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데다 아르바이트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자가 몇 개월 밀렸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더 이상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상황에 망연자실하던 박 씨는 올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되면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매달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원금을 갚아야 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에는 이자 상환 부담이 없고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돼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다 기존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수준별 이자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그해 2학기부터 기준금리를 5.8퍼센트로 낮췄으며, 소득 하위 3분위까지 무이자, 4~5분위는 4퍼센트, 6~7분위는 1.5퍼센트의 이자 지원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도 2008년 1만8천명에서 2009년에는 5만2천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올 2학기부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실시된다. 또 장학채권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학자금 대출금리도 추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소금융
금융 소외계층에 무담보·무보증 대출

김민석(41) 씨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소파 천갈이 기술을 배워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여의치 않았고 결혼마저 파탄이 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것은 미소금융이었다. 은행 대출은 엄두도 못 내던 김 씨는 올 2월 삼성미소금융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25년의 천갈이 경력을 살려 다시 재기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창업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확대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대출을 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7천억원, 기업 기부금 1조원, 금융권 기부금 3천억원 등으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1월 말까지 15개 기업·은행 미소재단과 8개 지역법인이 문을 열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에 2백~3백 개 지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통신비 경감
초당 과금 도입 등 통신요금 줄이기 앞장

가정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식구 수대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8월 30개 회원국의 방송통신 이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4.5퍼센트로,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의 1.4퍼센트에 비하면 3배가 넘는다.

정부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소비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왔다.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장기가입자 기본료 인하, 무선데이터요금 인하, 선불요금 인하,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초당 과금 도입 등으로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는 2007년 13만9천원에서 2009년 3분기 13만5천원으로 줄었고,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5퍼센트에서 2009년 3분기 5.8퍼센트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전화 기본료를 면제하

조영철 기자



동아DB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96만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왼쪽). 미소금융은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해주고,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미소금융재단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있다(오른쪽).

고 통화료를 50퍼센트 감면하며, 차상위계층도 기본료와 통화료를 35퍼센트 감면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과 무선데이터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재판매제도, 주파수 재할당을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로 경쟁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시내전화와 인터넷요금 감면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보육료 지원 확대
둘째 이상 소득 70%까지 전액 지원

다섯 살, 세 살 남매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이은정(35) 씨는 지난 1월 두 아이의 보육료를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 3월부터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퍼센트만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백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씨의 경우 본인의 월 소득이 2백10만원, 남편의 월 소득이 1백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4백80만원이라 기존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소득이 적은 남편 소득의 75퍼센트인 1백35만원만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백35만원이 되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첫째 아이는 차등보육료 30퍼센트를 지원받고, 둘째 아이는 차등보육료 30퍼센트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70퍼센트를 추가 지원받아 보육료를 1백 퍼센트 지원받게 된다.

> **든든 학자금,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보육료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을 계속 확대해왔다. 0~4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2008년 차상위 가구 이하 22만명에서 지난해 소득 하위 50퍼센트 가구 46만명으로 늘어났다. 소득 하위 50퍼센트 초과~60퍼센트 이하는 보육료의 60퍼센트, 소득 하위 60퍼센트 초과~70퍼센트 이하는 보육료의 30퍼센트를 지원한다.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지난해 소득 하위 60퍼센트에서 올해 70퍼센트까지 늘어난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위기가구 긴급 복지·고용·주거까지 통합 지원

청각장애를 가진 남편과 칠순의 시어머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 김정순(36) 씨는 남편의 장애수당, 어머니의 기초노령연금, 아들의 보육료 등을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다.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구비서류도 10종 이상 제출해야 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다수의 복지 서비스를 한 장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돼 민원인들이 한결 편해졌다. 그동안 시군구별로 나눠졌던 1백20여 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국민들은 복지 서비스를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복지 전달체계를 내실화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하기 위해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늘어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2월 각 시군구에 설치한 민생안정추진단을 2009년 3월 민생안정 태스크포스로 확대 개편해 긴급 복지뿐 아니라 고용, 교육, 주거 등을 통합 지원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신규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천4백32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한시생계보호 제도를 통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40만 가구가 도움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실직 및 퇴직으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실직이나 퇴직 후에도 12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어나면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연 2.4퍼센트의 이자로 생계비를 대출해 2009년 12월 말까지 2만8백76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또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중인 기간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도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나누기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일자리 선물

저소득층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다. 정부는 지난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2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만5천명의 행정인턴을, 2백97개 공공기관이 1만3천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

동아DB



소외계층에게 여행비를 지원하는 '복지관광'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5천2백45명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렸다.
지난해 11월 복지관광 특별행사 '2010년 희망의 연날리기'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도 8천여 명의 공공기관 청년인턴과 1만3천여 명의 행정인턴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인턴 계약 종료 후 우수 인력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고, 희망근로사업도 우량 중소기업의 현장수습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일자리 나누기는 민간에서도 확산됐다. 2009년 2월 노사민정(勞使民政) 합의에 따라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지원하고,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며, 세제 지원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2008년보다 7.4배 늘어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9만명이 고용안정 혜택을 입은 것으로 평가했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스포츠 바우처·공연전시 무료관람 등 제공

초등학교 6학년 김정훈 군은 지난해부터 5월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그동안 태권도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집안 형편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정부의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통해 태권도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사에 소극적이던 김 군은 태권도를 배우면서 성격도 활발해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강좌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비를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를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월 1회 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운동을 위해 필요한 운동복 등 용품 구입비도 첫 회 6만5천원 범위 내에서 종목별로 실비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6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스포츠 바우처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5만원 내에서 공연, 전시 무료관람을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도 지난해 48퍼센트 늘어나 25만9천8백58명이 문화혜택을 누렸다. 또 저소득 홀몸노인이나 조손가정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광으로 지난해 3천7백1명이 단체여행, 1천5백44명이 가족여행을 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과 문화를 나누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군부대, 교정시설,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지역에는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가 '사계절 문화 나눔 서비스'를 펼쳤고, 지방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에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 8백80여 개 시설에는 국악, 음악, 연극, 영화, 미술, 무용 등 예술강사를 파견했다.

예술강사 파견은 문화예술인들의 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전국 4천8백 개 초중고에 3천5백여 명의 예술강사가 파견됐고, 소극장과 문예회관 상주 예술단체 육성으로 3백50여 명,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1백6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거의 매주 1회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의 사령탑이다. 사진은 지난 1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경제위기 대응

"경기회복 전략, 한국에게 배워라"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정부 신속 대처…한국경제 살리기 '일등공신'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때 위기설까지 등장했던 한국경제. 그 암울한 전망은 이제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바뀌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인 한국이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무대에서 '말할 자격이 있는 나라'로 대접받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 지난해 11월 18일자는 '한국, 기적의 원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한 한국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을 인용해 "한국이 (2009년) 3분기 2.9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대해 상세하게 다뤘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생력 있는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서 9월에는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은 1년이 되지 않아 금융혼란이 끝나고 활기를 되찾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 9월 이후, 해외 언론과 투자은행 등이 한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앞다퉈 쏟아내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해 10월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



널〉은 "아이슬란드의 채무 불이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 중 아이슬란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대출 축소, 신용 경색이라는 세계적 위협이 유독 한국에 더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고 겁을 주는가 하면,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은행과 기업이 외채상환 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는 비관적인 기사를 실었다.

실제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 급감'과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위기 이전 1천4백 포인트대를 오르내리던 코스피 지수는 두 달도 안 돼 9백 포인트대로 급락했고, 1천1백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무려 1천5백70백원대로 급등했다. 수출도 2009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퍼센트나 줄었고, 수입도 같은 기간에 30퍼센트나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심재학 팀장은 "10년 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는 세계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여서 수출호조 등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동반 침체 현상 때문에 같은 전략이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4분기에 환율 불안, 주가 폭락, 수출 급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빠졌다"는 게 심 팀장의 분석이다.

지난해 상반기 '3월 위기설'까지 나돌던 한국경제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은 예상보다 빠른 4월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이 4월에 "세계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신호를 찾는다면 바로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론을 폈고, 〈파이낸셜타임스〉도 5월 한국 특집 기사에서 "한국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의 투자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6월에는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자주 내놓아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한국이 'V자형'의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야흐로 회생의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3월 위기설' 딛고 'V자형' 경제회복 징후

우리나라의 'V자형' 경제회복 징후는 각종 실물경제지수 호조로 나타났다. 2009년 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 대비 플러스로 올라섰고, 2분기에는 2.6퍼센트, 3분기에는 3.2퍼센트를 기록했다. 2008년 4분기 중 전기 대비 성장률이 OECD 30개국 중 29위로 거의 꼴찌였지만, 2009년 1분기에는 3위, 2분기에는 2위, 3분기에는 1위로 수직 상승했다. 주식시장도 안정적 회복세를 보여 코스피 지수가 2009년 가을 이후 1천6백대로 올라 금융위기 이전보다 호전됐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천1백원대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1천원대)으로 안착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퍼센트. 지난해 초만 해도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이 -6~-7퍼센트대의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던 것을 생각하면 좋은 성적을 받은 셈이다. 한국은행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됐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나

금융위기 당시와 최근 경제지표 비교

	리먼사태('08.9.15) 이후 최저치	최근 데이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5.1('09.1분기)	0.2('09.4분기)
주가(KOSPI)	938.75('08.10.24)	1627.43('10.2.17)
환율(원/$)	1,570.3('09.3.2)	1,143.5('10.2.17)
기준금리(%)	4.0('08.11.7)	2.0('09.2.12)
수출증가율(전월 대비,%)	−34.5('09.1월)	18.1('09.11월)
수입증가율(전월 대비,%)	−39.7('09.5월)	2.1('09.11월)
외환보유액(억 달러)	2,005.1('08.11월)	2,736.9('10.1월)
제조업 생산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27.0('09.1월)	35.9('09.12월)
단기채무(억 달러)	1,896('08.3분기)	1,468('09.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한국은행)	43('09.2월)	89('09.11월)

자료 : KDI, 한국은행 등 각 기관(수출과 수입증가율, 제조업 생산지표는 연말, 연초의 통상적인 감소세를 고려해 지난해 10~11월 기준으로 작성)

라는 우리나라와 호주, 폴란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08년 1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Negative)'으로 낮췄던 신용평가기관 피치사는 지난해 9월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해 한국이 대외 신인도를 회복했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외환보유액, 제조업 생산지수, 단기외채 비중 등의 경제지표(표 참조)도 대부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분석을 종합해보면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10월 OECD는 2009년 3분기까지 시행된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에 힘입어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 더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적극적

동아DB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를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코엑스에서 코트라 주최로 열린 'Buy Korea 2009' 행사.

>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비결은 무엇일까.
> 지난 한 해를 종합해보면 '비상경제정부 운영,
> 신속한 재정·금융 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 경제회복세를 구현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경기부양책이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비즈니스위크〉는 공격적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한국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늘고 있다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빠른 반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대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곳이 '비상경제대책회의'다. 2009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은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갈 것이라고 선포한 데 이어 '비상경제상황실'이 출범하고, 1월 8일에는 첫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를 제외하고 매주 빠짐없이 40회에 걸쳐 열린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요 경제 각료와 청와대 참모진, 기업인,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조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다.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재정지출, 금융, 외환 등 거시경제 정책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국제공조 및 대외개방 방안 △경제 체질 개선 및 성장동력 발굴 등을 집중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했다.

상반기 예산 60% 조기 집행 등 발 빠른 대처 주효

이 가운데 거시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약 4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상반기에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앞당겼다. 또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선제적 금융시장 안정정책도 추진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6차례 인하해 현재 2퍼센트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초저금리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압박과 기업,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임으로써 극심한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와 더불어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 금융시장안정기금 등을 조성해 금융시스템의 조기 연착륙에 기여한 것도 성과다. 또한 수출경기와 직결되는 외환 부문에서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과 기업을 대폭 지원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거나 확대해 글로벌 신용위기의 불안을 완화하는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국제공조에 나선 것도 경기회복과 국가신

인도 향상에 기여했다. 지난해 한국은 G20 차기 의장국으로서 재무장관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재정 확대와 보호주의 저지 등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금융기구와 적극 공조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주력했다. 먼저 부실 우려가 제기된 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29개사, 조선업체 7개사, 해운업체 19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기업 33개사, 중소기업 5백12개사에 대해서도 워크아웃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불안감을 완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한국경제 체질 개선 주력

한편으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교육·콘텐츠·정보기술(IT) 산업 등 9개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수출을 위해 글로벌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망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수출 1억불 콘텐츠' 지원책과 함께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한중 게임 공동위원회, 아시아 콘텐츠 비즈니스 정상회의 등 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영화, 게임 등의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3차원 입체영상 기술 등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강도 높은 경기회복 전략을 편 결과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90년대 외환위기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한국이야말로 "세계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물론 마음을 놓기는 아직 이르다. 최근 그리스 경제위기 사태에서 보듯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OECD는 향후 한국의 과제로 재정지출 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중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을 제시했다. 한국경제 재성장 도약의 방안인 녹색성장과 서비스산업을 주축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6개월 더 연장해 운영하는 등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국제사회 영향력 커지는 '한국주식회사'

해외 언론·경제전문가들이 본 한국경제



삼성전자

이제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최신 인터넷 TV를 구경하는 외국인들.

"2009년은 한일의 명암을 나누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1년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판매를 확대했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자동차시장이 축소되는 와중에서도 판매 대수를 전년 대비 11퍼센트 늘렸다."

지난 2월 9일자 일본 〈닛케이신문〉은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제목 아래 한국의 강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특히 한국이 기세 좋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요인으로 꼽은 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다. 한국 기업이 일본 제품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일본 기업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선 한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며 "하토야마 정권의 경제정책은 '성장전략'이 결여돼 있다. 일본 산업계가 '한국 주식회사'를 부러워하는 목소리마저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경제위기 극복 후 한국에 주목하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로이터통신〉은 2010년에도 한국은 일본을 앞서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 펀더멘털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처지라는 분석을 내놨다. 기사 중 노무라증권의 전망은 '2010년 한국경제는 5퍼센트, 일본경제는 0.8퍼센트 성장'. 그런가 하면 지난해 봄 스위스 〈라게피〉는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경제위기에 대처한 것과 달리 스위스 정부는 늦장 대처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전문가의 '한국 강점 분석'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12일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조지프 나이 교수가 기고한 칼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한국'에서 한국은 작지만 매력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국이며, G20의 중요한 회원국이자 인터넷과 정보기술(IT)의 주도적 국가라는 것.

아울러 평화적인 정권교체 등 민주적인 정치시스템과 미술, 공예, 요리 등 세계 전역으로 널리 퍼지는 한국문화, 국제기구 등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중요한 임무를 이끌어가는 외교정책 등 한국의 매력이 돋보인다는 게 나이 교수의 주장이다.



동아DB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한국은 이제 세계 속의 녹색성장 허브로 발돋움했다.

녹색성장

녹색호랑이 한국, 세계를 호령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가장 야심차게 내세운 국가 미래 비전을 꼽자면 단연 '녹색성장'이다. 세계적 경제불황에다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라는 거센 풍랑과 마주한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목표다. 이제 '그린혁명'이 선포된 지 2년.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어떠한 성과와 과제를 남겼을까.

지난해 9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 볼룸. 녹색성장위원회와 유엔이 공동개최한 '그린 코리아 2009' 국제회의장에서 샤 주캉 유엔 경제사회국 사무차장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 한국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녹색성장은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른 실천을 앞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를 떠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 자체가 세계 녹색성장 '허브(Hub)'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선순환시켜 시너지 효과를 언는다'는 녹색성장 코드를 신(新) 국가전략 패러다임으로 지목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삼고 녹색성장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 3대 전략·10개 정책 방향 수립

3대 추진 전략 중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두드러졌다. 정부는 10대 정책 방향 중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고 그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첫 단계로 지난해부터 인벤토리(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기록, 산정, 보고하는 총괄시스템) 구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14개 광역지자체와 30개 기업

이 참여하는 총량제한 방식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가 정착되면 2020년까지 직접규제만을 통해 국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60퍼센트를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비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취지의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출범한 ‘그린스타트’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2월 현재 전국 네트워크가 2백6개로 늘어난 그린스타트는 전 국민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를 약속하자는 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펼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여대는 에코캠퍼스 ‘STOP CO_2!’를 선포하고, 국내 대학 중에선 처음으로 기후변화 강의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 **정부는 녹색성장 청사진 확정, 4대강 살리기,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UAE 원전 첫 수출, 녹색생활 실천 ‘Me First’ 등으로 녹색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

지식경제부의 ‘Me First’ 운동도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부터 부처별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범정부 절약 체계를 구축했다. 겨울철 실내온도 기준 섭씨 1도 낮추기, 신축건물 창문 면적 제한 등의 규제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적용되고 있다.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 주도국 위상 높여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는 특히 해외 자원 개발 부문이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국정 최우선 어젠다로 삼은 해외 자원개발은 지난 2년간 총 2조6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면서 알찬 성장세를 보였다.

정부는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물공사법을 개정해 자원 관련 공기업의 개발역량 강화 기반을 다졌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가 러시아와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중동국가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주요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따냈다.

지난해 10월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와 바드라 광구 지분 일부를 매입하면서 최초로 이라크 중앙 정부 유전을 확보했고, 페루 페트로테크, 캐나다 하베스트, 카자흐스탄 숨베 등 해외 유수의 석유기업과의 인수, 합병도 성사시켰다. 그 결과 2007년 4.1퍼센트에 불과하던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8.1퍼센트로 두 배가량 향상됐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우라늄을 캐나다 데니슨사 등의 지분 인수를 통해 처음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형 원자력발전 설비 기술의 최초 해외 수출은 가장 돋보이는 성과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와 1백40만 킬로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400) 4기 건설을 위한 2백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운영지원에까지 참여할 경우 2백억 달러의 추가 수주 효과도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확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 그리드 구축 기반도 마련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지난해 12월 산학연 전문가 합동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 1월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스마트 그리드의 조기 상용화 및 관련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조성 계획도 발표됐다. 세계시장 선점과 해외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스마트 그리드 협력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녹색성장위원회 이호중 전문위원은 “무엇보다 한국이 녹색성장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이 지난 2년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정부가 주창한 녹색성장, ‘Green Growth’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만큼 녹색성장 주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 이 위원은 “현재 여러 갈래로 나눠진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방향들이 자연스러운 기업활동과 생활의 실천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을 찾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G

글 · 유재영 기자

과학기술 강국 코리아 만든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목표로 한 ‘미래 준비’도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주요 키워드. 정부는 지난 2년간 과학기술, 보건의료, 신성장동력 분야의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일부 성과도 거뒀다. 특히 과학기술 기반,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실적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로 확대하고 신산업 등 7대 중점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핵융합 연구 분야에선 이미 플라즈마 발생, 형상 구현 등 다양한 핵심 제어기술이 개발됐다.

한편 대일 적자만도 2백억 달러에 이르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018년까지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수입 규모가 크거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품목에 대해 2012년까지 자립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발전

지역 경쟁력 키워 경제 활성화 이룬다



동아DB

새만금 개발사업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사진은 새만금의 신시배수갑문과 방조제 다기능 부지.

#1 바다를 가로질러 33킬로미터의 방조제를 쌓은 새만금이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도가 설 연휴에 임시 개통한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오간 차량은 1만8천 대. 이곳을 찾아 새해 소망을 빌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전북 부안군에 사는 신옥자 씨는 “쭉쭉 뻗은 방조제처럼 아이들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서울 잠원동에서 온 김경민 씨는 “말로만 듣던 새만금을 직접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방조제 너머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가력배수갑문을 따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체험형 ‘시워크(Seawalk)’를 201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 한강 하류와 서해를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지난해 6월 착공돼 한국 최초의 운하로 태어나게 된다. 경인아라뱃길의 주운수로는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14.2킬로미터)에 한강 쪽으로 3.8킬로미터의 물길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총길이는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 18킬로미터에 달한다. 여기에 한 번에 최대 2백5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바다·하천 겸용 선박이 투입되며, 2012년부터는 여객선이 서울과 중국을 오간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의 국내외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근처에 물류단지도 들어선다. 이에 따라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아DB

세종시에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감도(왼쪽). 경기 부천시는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의 물을 끌어들여 소규모 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5+2 광역발전모델 추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세종시 발전안,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 종합개발 등 지역 특화와 상생의 원칙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전국 곳곳에서 개발 열풍이 일고 있다. 각 지역은 명품·첨단·혁신·친환경도시 등으로 특화되고, 강과 하천은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깨끗하고 좋은 물로 다시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방도 고루 발전시켜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지자체 간의 자율통합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지난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지역과 주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통합 추진 대상을 선정했다. 경남 창원·마산·진해, 경기 성남·하남·광주, 경기 수원·오산·화성 등 3곳이다. 특히 창원·마산·진해시(통합 명칭 '창원시')는 올해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과 더불어 자율통합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게 된다. 이러한 자자체 간 자율통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 지역 재정 자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방 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끝나기로 돼 있던 분권교부세 운영 기한도 5년 연장했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3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총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총 3조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재정자립 토대 마련

지난해 1월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가속기 설치, 비즈니스기반 구축,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등이 그 골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일부는 세종시의 주요 과학산업 거점과 연결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에도 포함돼 있다.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꾼 발전안의 목표는 자족성이 뛰어난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백57개 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 대부분을 순차적으로 승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기관의 부지를 매입했다. 아울러 10개 혁신도시의 토지보상을 99퍼센트 이상 끝내고, 모든 공사구역을 착공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했다.

'5+2 광역경제권' 구축도 국민적 관심을 모은 지역발전 정책 중 하나. 이는 전국을 인구 5백만명 이상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의 5대 광역경제권과 5백만명 미만인 강원권, 제주권의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눈 것으로 각 권역별 협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년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각 광역권별 선도산업 육성, 인재 양성, 산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의 혁신적 추진을 위해 2008년에는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주민 편의와 행정효율을 고려해 6백97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온 경인아라뱃길 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경인아라뱃길을 착공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약 3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6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어내리라는 기대 속에 국제적 랜드마크를 꿈꾸는 경인아라뱃길은 친환경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개발사업도 지난 1월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새만금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Ariul(아리울)'이라는 브랜드네임을 얻은 새만금에서는 오는 4월 말 새만금 시대의 개막과 비전을 알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새만금 깃발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G

글·김지영 기자

교육 개혁

EBS 수능강의로 전교 100등에서 3등

"사교육 도움 없이 '공부의 신' 될 수 있게"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기주도학습 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경쟁이 치열한 자립형 사립고나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라디오 연설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약속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송윤지(16·서울 강북구 삼양동) 양은 오는 3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든 하나고 입시에서 송 양이 평균 7.4 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하는 데 기여한 일등공신은 '학습일기'다. 인터넷 카페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그날 공부할 세부 진도와 시간, 만족도까지 빼곡하게 표시하고, 어머니에게 매일 확인을 받은 기록물이다. 송 양이 중학교 2학년을 앞둔 겨울방학부터 쓴 이 학습일기는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로 공부했다는 산 증거다.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전교 15등이던 송 양은 학습일기를 쓰면서 전교 3등으로 성적이 쑥 올랐다. 어머니 이계영 씨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원교습을 끊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윤지가 스스로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12월에 중학교 3학년이 치를 전국 33개 외국어고와 6개 국제고 입시에서는 송 양처럼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외고 입시 세부 추진방안'에 포함된 '자기주도학습전형'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민족사관고, 하나고, 상산고 등 14개 자율형 고교에도 비슷한 입시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이야말로 정부가 2년간 추진해온 △입학사정관제 도입△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 △EBS 수능강의 내실화 △고교 다양화 등에 이은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제도 개혁 강력 추진

2008년 대학입시부터 적용한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신호탄이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창의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성적과 수상 경력에 의존하던 기존 입시 방식을 바꾸고 있다.

올해 포스텍에 합격한 A(19)군은 입학사정관제 덕을 톡톡히



동아DB

충북 청주시 세광고는 수준별 방과 후 수업으로 일반고도 특목고 못지않은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세광고의 방과 후 그룹 스터디.

본 사례다. 고교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중위권이던 A군은 사교육 없이 꾸준히 노력해 3학년 1학기에 상위 4.7퍼센트까지 성적을 끌어올렸다.

포스텍 권성철 입학사정관은 "스스로 공부해 성적을 끌어올린 열정을 높이 샀다"며 "포스텍의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시제도"라고 강조했다. 2010년 입시에서 1백7개교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3만8천7백48명을 선발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전형 대학과 선발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9년 한 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생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이 참여했다. 초중고생의 57.6퍼센트인 4백27만6천여 명이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공부를 보충하거나 취미활동을 한 것. 특히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산어촌 학생들의 참여율이 74.1퍼센트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부모의 61.8퍼센트, 학생의 59.1퍼센트가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데 수긍했다.

오는 3월 홍익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는 안성수(19) 군은 고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EBS 수능강의를 들으면서 '기적 같은' 성과를 올렸다. 1학년 때 전교 1백 등이었는데, 2학년 때 무려 전교 3등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안 군처럼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EBS 수능강의가 큰 원군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EBS 수능강의에 학원가에서 이름난 '스타 강사'를 초빙하는가 하면 맞춤형 강좌, 학습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 지원·산학협약 확대로 고교 교육경쟁력 강화

호응도 높다. 지난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한 학생들이 전체 대학입시 수험생의 71.1퍼센트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EBS 수능강의 활용률 조사 결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 중소도시 학생일수록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고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교육개혁의 성과물이다. 2008년부터 정부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특색 있는 고교를 선정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의 입시 경쟁률은 2010년에 3.33대 1로 나타나는 등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졸업생 취업 지원책과 산업체 간 협약 확대 등에 힘입은 결과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정제영 사무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최은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학교제도기획과 Tel **02-2100-6457**

자기주도학습전형

'외고·국제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유리


동아DB

올 연말 외고와 국제고 입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당락을 가른다.

올 연말 외고와 국제고 등 이른바 '특목고'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대 관심사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다. 2011년 입시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은 그동안 과도한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목고 중심의 입시 지도를 뒤흔들 만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한 학생이 외고와 국제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학생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해 학습한 후 스스로 평가한 자기주도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기준으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2011학년도부터 외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 포함) 입시에 적용된다.

선발 기준은.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각종 인증시험 점수 및 자격증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한다. 즉, 1단계에서는 '영어 성적(1백60점)'과 '출결'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영어 성적 1백60점과 면접 40점을 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외고나 국제고가 아닌 고교의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영어 이외 과목 성적 반영 등 구체적 방안은 3월에 확정된다.

면접도 중요한 변수인데, 어떤 자료를 활용하나.
면접에서는 학습계획서, 교사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영어 외 교과 성적과 수상 경력 제외)를 활용한다.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봉사활동(해외봉사 제외), 독서 경험 등이 중요하다.

입학사정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학교 교원, 외부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이 함께 참여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울산외고와 경기외고 입시 때 학교와 협의해 입학사정관 면접을 실시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범 도입했다. 이들 학교에서 합격 사례로 소개한 학생들의 경우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이거나 수상 실적이 화려하진 않았으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점과 학교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

법질서만 바로 세워도 '선진국'

법과 질서를 지키면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다. 교통사고 줄이기, 먹을거리 안전 강화, 여성과 아동 보호, 노사관계 선진화 등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꼭 이뤄내야 할 것들이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교통체계 정비로 사고 발생률 14.5% 감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박기영(47) 씨는 요즘 운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 박 씨는 좌회전이 우선시되는 신호체계 때문에 차가 밀린다고 생각해왔는데, 올해부터 직진 우선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차로 꼬리물기가 줄어든 것도 차량 흐름이 좋아지는 데 한몫했다. 2월1일부터 경찰이 캠코더를 동원해 꼬리물기 집중 단속을 벌인 덕분이다.

지난해 정부는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국제적 표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 확립에 나섰다. 점멸신호 확대, 비보호 좌회전 확대 등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직진 우선 신호와 우회전 신호등 운영 등을 실시한다.

지난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과제 추진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점멸신호·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14.5퍼센트, 사망 사고는 30.6퍼센트 감소했다.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1백16킬로미터의 보·차도 분리시설과 9백 개의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개선했다.

법질서 확립
체험형 법교육 실시·불합리한 과징금 규정 정비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첫걸음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 말이 그저 캐치프레이즈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회지도층이 법질서 지키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비리, 지역토착 비리, 법조비리 등 중점 척결대상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천1백52명을 단속하고 1천80명을 구속했다. 특히 뇌물죄에는 뇌물 수수액 2~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해 제재 효과를 높였다.



일러스트 · 남동윤

또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체험형 법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생활과 밀접한 과태료와 과징금 규정을 합리화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에는 PC방 업주가 유통질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개월 영업정지와 30만원의 과태료가 중복 부과됐지만, 경미한 위반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공평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폐지했다.

식품 안전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도 증가한다. 그중에서도 식품 안전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이에 부응해 정부는 멜라민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 영업자의 형량 하한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우수제조시설 인증제,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 등을 도입했다.

특히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학교와 학교 주변 2백 미터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 관리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리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식품인증제(HACCP) 의무적용업체와 자율적용업체를 지난해 7백29개소에서 올해 1천1백26개소로 확대하고, 올해 6월부터는 부적합 식품 수입업자에 대해 교육 및 검사 명령제를 도입한다. 또한 위해상품정보로 입력되면 즉시 전국 가맹점 판매대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여성·어린이 보호

폭력 예방·성범죄자 처벌 강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2008년 6월부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통해 학교, 경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왔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 2백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2만4천여 곳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통해 6백94명의 아동을 보호했고,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한 아동안전지킴이가 28만3천8명의 아동을 지켜냈다.

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늘렸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는 2007년 3곳에서 2009년 10곳으로 늘었고,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2007년 15곳에서 2009년 18곳이 됐다. 또 지방경찰청에는 아동 성폭력 등의 수사에서 송치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수사기동대를 발대해 성폭력 수사를 전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심리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 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함께 성범죄자 처벌 강화에 나섰다. 피해 정도와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확실한 초동수사로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하고, 영상 녹화물 증거 채택을 통해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 2차 피해를 막는다.

> **"성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 아동 성폭력 등을 전담하는 원스톱 수사기동대를 만들어 수사를 전문화하고, 피해아동 조사 시 심리 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살인, 아동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함으로써 범죄 발생 시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범인 검거율이 높아지고 동일범에 의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DNA 신원확인으로 무고한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수요자 중심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신경진(24) 씨는 지난해 실직 후 출판디자인을 배워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해 학원 수강료의 80퍼센트를 지원받아 비용 부담은 크지 않았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기존의 실업자 훈련과 달리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직업훈련계획서를 제출하면 1인당 2백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계좌카드가 발급된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9만7백61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근로기준 선진화에도 나섰다. 지난해 행정 해석과 지침 변경을 통한 근로기준제도 유연화를 추진했으며, 올해도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제도 및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이 이뤄졌다. 복수노조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G

글·이혜련 기자

실용외교

높아진 국격 '실용외교'로 내실 다져

G20 유치·신아시아 외교 등 글로벌 리더십 성과

세계 경제협력의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다. 비(非)G8 국가로서 최초,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서 최초의 유치 성공은 한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됐다.



동아DB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지난 1월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특별연설을 했다.

지난해 10월 4~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대표단은 색다른 경험을 했다. 열흘 전쯤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 효과를 곧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대표단을 대하는 다른 나라 대표단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 윤 장관은 물론 동행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최희남 G20 기획단장 모두 잇따른 초청행사와 면담 요청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한국을 울려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G20 정상회의 서울 유치로 단숨에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한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읽어낼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경제포럼인 스위스 다보스포럼(1월 27~31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했다. 이번 다보스포럼 단독 특별연설은 한국과 중국, 캐나다, 브라질 4개국 대표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 "한국은 본받아야 할 나라"

도대체 G20가 뭐기에 이렇게 대접이 달라졌을까.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G20 정상회의는 기존 G7 참가국을 포함해 신흥경제 12개국과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 구성되는데, 경제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퍼센트 이상, 세계 인구로는 3분의 2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실세인 셈이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전과 다른 대접을 받게 된 것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난 국가라는 점도 한몫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잇따라 방문해 '자원외교'를 벌일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사우나 회동'을 가지며 '특별 대접'을 받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사우나 회동 대접을 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전 대통령 등 몇몇 정상에게만 국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가 2년간 추진해온 실용외교의 중요한 맥락이다. 실용외교의 한 축으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적극 전개해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2009년 10월)했고, 브릭스(BRICs)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올 1월부터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FTA와 유사)이 발효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이 강화된 점도 외교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親)한국 발언이 한미 간의 껄끄러움을 없애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재조명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본받아야 할 나라'로 소개해왔다.


동아DB

지난해 5월 자원외교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우의를 다지는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다각적인 FTA 협상, 한미동맹 강화, 신아시아·아프리카 외교 강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랜드바겐 구상 제시 등 실용외교 노선을 펼쳤다. 그 결과 글로벌 리더십 향상과 실용외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됐다."

한·미, 한·아시아 관계 내실화… 한국 입지 높아져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관심이 지대해 지난해 11월 백악관에서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한국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2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버크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원전 건설에 대한 8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보증 계획을 발표, 30년 만에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재개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56기 가운데 21기가 중국, 6기가 한국, 5기가 인도에서 건설되고 있다"고 또다시 한국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한미관계를 한 차원 더 높였다. 또 오바마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전략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했다. 한미 전략동맹 미래비전은 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분야까지 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도 챙기며 한국의 역내 위상도 강화했다. 우리 측 제창으로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상 최초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으며, 이 회의의 연례화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때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신아시아 외교'를 천명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적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2009년 5월)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도 신아시아 외교의 한 방안이다.

한국의 국격 향상은 우리 해외 교민들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을 높였다. 여기에 호응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인터넷에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2년간 있어온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과 실용외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G20 서울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11, 12일 이틀간 열린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회의 일정을 발표하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격을 높이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동아DB

지난 1월 아이티에 파견된 민관 합동 의료봉사단이 지진 참사로 부상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국격 향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그 나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국격(國格)이 높아지면 국가브랜드 가치와 대외 경쟁력도 동반 상승하게 마련.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한식 세계화, 해외원조, 글로벌 시민의식 고취 등 국격 높이기를 위한 노력을 거듭하며 한국의 이미지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놓았다.

#1 우리 술 막걸리가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09년 농수산물 수출입 내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6백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9퍼센트 증가했다. 농수산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막걸리의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2007년 16퍼센트, 2008년 52.2퍼센트 등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막걸리 업체들이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것은 고급화. 특히 수출을 위해 유통 기한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순당은 막걸리의 유통 기한을 열흘에서 한 달로 늘렸고, 고구려문화연구회는 유통 기한이 최소 1년인 생막걸리 개발에 성공했다.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막걸리 제조업체 '초가'는 전체 생산량의 99퍼센트를 일본시장에 공급한다. 가격이 비싼데도 일찌감치 주문하지 않으면 구입하기 어려울 만큼 인기가 높다. 전북 전주막걸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공식인증도 받았다.

#2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지진 참사가 발생한 아이티를 도우려 1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파병을 결정하고 현지로 긴급구호대를 급파했다.

지난해 11월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국제원조 의무를 수행한 것.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50년간 국제사회의 각종 공적개발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추진했으며 1995년에야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위상이 바뀐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동아DB



> 지난 2년간 정부는 국격 제고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G20 정상회의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국가브랜드 제고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고양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동아DB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한 김윤옥 여사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대접할 파전을 만들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식당에서 한국 전통음식을 맛보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왼쪽 위).

한식(韓食) 세계화, 해외원조 등 국격(國格) 제고 정책이 이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 국격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를 키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 나라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문화, 국민의식, 대외 이미지 같은 소프트파워가 강해져야 비로소 국격도 올라간다. 국격 향상은 국가브랜드 가치와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된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국격 높이기에 힘써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동안 국격 제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봉사단을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로 통합하고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 56개국에 3천7백30명의 봉사인력을 파견했다. 또 각국에 우리나라의 첨단강국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난해 9월에는 한국어 통합 정보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에서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해외여행 에티켓 등 글로벌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DAC 가입·국제회의 유치 등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내년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유네스코 등재 유산 확대,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 등도 국격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5월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 참가를 위해 중국 현지에 한국관, 기업연합관, 서울시관을 설치 중이다. 또한 민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상하이 엑스포를 국가 이미지 개선과 한중 우호협력 증진의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상하이 엑스포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는 교두보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여왔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2005년 4천2백만 달러에서 2008년 1억 달러로 늘린 것이 그 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인권침해가 심각한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추진해온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Global Korea Scholarship)'이라는 국제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신설한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도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한몫했다. 세계 우수 인재 교류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초청한 장학생은 5백명에 이른다. 올해는 그 규모가 7백명으로 확대되고, 교환학생 및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이 새로 생길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한식 세계화는 2008년 10월 열린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계기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돼왔다. 지난해 5월 수립한 한식 세계화 5대 전략에 바탕을 둔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한식 요리명장 양성, 스타 한식당 육성, 한식 체험기회 확대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한식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한식문화를 널리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실은 농식품 수출 증가와 한식 프랜차이즈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막걸리뿐 아니라 천일염, 삼계탕, 고추장의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 해외 언론에서는 '김치 퓨전음식 인기'(뉴욕타임스), '한식바람이 불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 '막걸리, 순두부 열풍'(아사히신문) 등에 초점을 맞춰 한식 붐을 조명하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식재단을 출범시켜 한식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한반도 신평화 구축

核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그랜드바겐 확고한 원칙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을 강행하고 도발적인 발언과 무력시위로 대결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한반도 신평화 구축의 길에는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이라는 확고한 원칙만이 있을 뿐이다.



동아DB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지난해 9월 23일 뉴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바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포괄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을 제의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추진한다는 것.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5월 2차 핵실험 등 한반도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는 일단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 트랙'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유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후 중국, 러시아 고위 인사 방북, 미·북 접촉 등의 기회를 활용해 북측에 6자 회담 복귀 및 비핵화 추진을 설득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해온 남북관계 진전의 단계적 방법이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등장한 것이 한반도 신평화 구축 방안이고, 그 가운데 혜성처럼 떠오른 해법이 바로 그랜드바겐이다.

신평화 구축 방안에는 군 구조와 국방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핵심은 전력구조의 재설계다. 2005년 68만1천명에서 지난해 말 65만3천명으로 병력이 줄어든 대신 북핵 위협(핵, 미사일) 대비 및 합동능력 발휘가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된다.

한반도 신평화 구축은 사실상 그랜드바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도 그랜드바겐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그랜드바겐 구상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랜드바겐은 올해도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월 30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향후)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그랜드바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2월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이 그랜드바겐을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원칙론을 강조했다.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전개

정부는 한편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화 채널을 가동해왔다. 2008년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개성공단 출입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지만 민간교역 등 실질적 협력은 계속 유지해왔고,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과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대북 지원도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남북협력 확대 방침 아래 한반도 신평화 구상의 구체적 방안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통일부 주도로 단기에 실행 가능한 당면 계획과 중장기 세부 계획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핵화 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공공부문 선진화

조직은 간소화, 효율성은 'UP'!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국가 리모델링'

지난해 10월, 15년 동안 풀리지 않던 숙원이 해결됐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해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첫 결실을 본 것이다. 자산 규모가 1백5조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탄생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양 공사의 통합을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정부는 '작은 정부론'에 뿌리를 둔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부문 선진화'를 국정 주요 과제로 삼았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공부문 선진화를 국가 리모델링의 발판으로 삼고 강력히 추진했다.

공공부문 선진화의 첫 번째 과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조직 간소화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재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들은 핵심 기능으로 재편해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등 국정 현안을 수행하거나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대민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다.

두 번째 과제는 2008년 8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선진화다. 정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기 위해 35개 기관을 15개로 통합하고 9개 기관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관 통합의 첫 사례로, 200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뽑히는 등 공공기관 통합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내부 개혁도 단행됐다. 전체 공공기관 임금 2년 연속 동결, 2백52개 기관의 초임 인하 등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보수 체계에 손을 댔다. 또한 그동안 비전문인 출신 기관장의 경영자질 논란이 많았던 만큼 지난해 처음으로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해임 건의를 가능케 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그동안의 외형적 구조개혁 성과가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나갈 것"이라며 "방만경영 개선과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이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변화 방안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주요 세정 사항을 심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하는 등 '투명 세정'을 위한 시스템 개혁에 힘을 쏟았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책을 추진해 지난해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15개로 통합·9개 기관 민영화 추진

농협과 수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 조직을 연합회, 2개 지주회사, 자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협도 '신수협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력·조직 감축,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루 12억원씩의 적자가 생기던 공무원연금의 부실구조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새 연금법에 힘입어 연금 적자는 향후 10년간 30퍼센트 이상 줄고 장기적으로는 40퍼센트 이상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 선진화를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원을 기존 3개 연구회에서 2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동아DB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등이 현판제막식에 참여한 모습.

국민과 소통

"정책 아이디어 주세요"

신문고·생활공감 정책 등 소통 창구 활짝

#1 대학생 박주민(가명·23) 씨는 최근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지하철 일일 이용권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장거리 통학을 하는 터라 여러 번 내는 대중교통 요금이 부담됐던 박 씨는 하루 승차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교통카드를 만들거나 1회용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일일 승차권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박 씨는 이를 '국민제안'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 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2 주부 손민경(가명·40) 씨는 초등학생 자녀들이 치킨, 피자 등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다. 배달 음식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손 씨는 영업장을 벗어난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야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적어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은 전국 각지를 찾아 현장 제안을 들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택지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동신문고팀.

예전에는 불편하거나 필요하다 싶은 정책이 있어도 당국에 제안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절차를 까다로워했고 '과연 이런 제안들이 정책화될까' 하는 의구심도 컸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고, 작지만 소중한 국민제안을 하나씩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국민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국민신문고'가 있다. 범정부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로 불리는 국민신문고는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 시스템이 통합 연계된 홈페이지로,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1천7백여 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신문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것.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양한 외국인의 모습을 게재해 어려서부터 다문화 접하게 하기' 등 2만7천4백7건의 다양하고 실속 있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이 중 6백31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는데 이는 2008년 채택된 3백66건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제안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이동신문고' 제도도 운영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과 이동신문고팀은 지난해 12월 영하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도 경기 화성시 장안택지개발지구 주민대표들을 찾아 택지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동신문고는 지난 2년간 2천83건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중 3백40건을 현장에서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반지연 홍보담당관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국민신문고와 이동신문고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생활공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해 수시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 지난해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1만8천5백25건의 아이디어 중 1백 건이 생활공감정책으로 만들어졌다.

국민과 쌍방향 소통 '정책 프로슈머 시대' 열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된 생활공감기획단은 각 부처에서 신규과제를 조속히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돕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정책을 알리고 있다. 생활공감기획단은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한양대 행정학과 최병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생활공감정책이야말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용주의 정책"이라며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실 김진수 사무관은 "생활공감정책으로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정성 들여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민신문고 epeople.go.kr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oklife.go.kr

관광산업 활성화

지난해 외래 관광객 780만명 성과

G20 유치로 폭발적 성장 기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다국적 생산업체 허벌라이프 회원들이 마케팅 기법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아태지역 12개국에서 참가한 2만여 명의 외국인들은 회의가 진행된 사흘 동안 6백22억원을 쓰고 갔다. 이는 쏘나타 3천여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효과다.

이처럼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씀씀이는 일반 관광객의 두 배가 넘는다. 이들은 숙소로 특급호텔을 잡고, 숙박비와 회의 참가비를 단체에서 지원받는다. 공식 일정 외에 주어지는 관광 시간에도 넉넉하게 돈을 쓴다. 이를 일컬어 'MICE 관광' 혹은 '국제회의 관광'이라 한다.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릿글자로, MICE 관광은 의료, 한류(韓流), 생태녹색관광과 함께 신흥 관광산업으로 떠올랐다.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들 신흥 관광산업을 17대 신성장동력의 한 분야로 선정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은 정부가 미래 국가비전으로 삼은 녹색성장과도 맥을 같이할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세 차례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열고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도를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왔다.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한국의 강점을 해외에 적극 알리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좋은 예. 아울러 정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생태관광 세계화를 위한 10대 모델사업, 스토리가 있는 생태탐방로 선정 등을 통해 녹색관광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러한 관광산업 진흥정책과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9년 만에 관광수지 흑자를 이뤄냈다. 2007년 1백1억 달러 적자이던 관광수지는 지난해 5천5백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외래 관광객 수도 2008년 6백89만명에서 지난해 7백8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은 3백5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제회의 유치효과 등 힘입어 9년 만에 관광수지 흑자 전환

외국인 5백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형 국제회의 유치 건수도 2007년 24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2011년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도 그중 하나. 관광 분야의 최대 규모 회의인 UNWTO 총회는 2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UNWTO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관광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21개국 중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평가항목 중 대외협력, 녹색관광, MICE 등 6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MICE 참가자도 2008년 65만명에서 2018년 3백18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5만명에 이른 의료관광객 수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13년 20만명, 2020년 1백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스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키를 배우고 있다. 올겨울 강원도 9개 스키장에는 개장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

“소통하고 합의하는 사회로…”

“이런 한국 됐으면 좋겠어요” 각계 목소리

2008년 2월 공식 출범 후 꼭 2년.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주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는 데 진력해온 이명박 정부가 어느덧 정권 중반기에 들어섰다. 국민들은 올해 이후 정부가 어떤 노력을 쏟아주길 바라는지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교육·복지 문제 해결돼 더 따뜻한 나라 됐으면”

김영희 | 50 · 주부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나는 정부가 하는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왔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웃들과 지내다 보니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생활 곳곳에 자리한 정책들이 조금만 바뀌면 크게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구청에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가 모집하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알게 되어 지원했다.

지난해 제1기 주부모니터로 활동하며 주부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고스란히 정책으로 반영하는 일에 참여하다 보니 정부와 국민이 이토록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됐다. 주부모니터로 활동하면서 ‘모두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든다.


정경택 기자

야간 전담 유치원 운영,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전기료 월 20퍼센트 할인 등 꼭 필요하고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정책으로 채택되는 주부모니터단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세도 배울 수 있었다. 이렇듯 정부가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주부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기울여줬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변의 삶을 되돌아보면 변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지만,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은 과도하게 번창하고 있다. 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들 사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휜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 키우기가 여의치 않다 보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이런 교육과 복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서 좀 더 살기 좋은 따뜻한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공교육 살리기 해답은 교사에 있어요"

김연주 | 41 · 교사 · 서울 양천구 목동


조영철 기자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을 꼽으라면 공교육 강화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교육 열풍이 지나치리만큼 심해져 공교육이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고 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도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우리 사회에 조금씩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특히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과후 수업은 학업성취도를 높이거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에 집중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더욱 활성화되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고 공교육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공교육 강화 정책을 수행하느라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 탓에 정작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방과후 수업 진행을 위해 교실을 비워주느라 일부 담임교사들은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날이 성장 발전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힘써야 한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주고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공교육 강화의 해법을 교사를 통해 얻었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다.

"청년실업 해소 근본적 해결책 기대합니다"

김용혁 | 34 · 법학전문대학원생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조영철 기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청년실업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왔다. 지난 2년간 정부가 행정인턴 확대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외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장기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세계 경기를 고려하면 각 고용분야에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는 기업이나 산업현장만의 현실이 아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취업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나처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취업 소식은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현안이다.



일러스트 · 남동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법조 고용시장'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포함해 약 3천명의 법조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현재 매년 1천명 정도 배출되는 사법연수원 졸업생들도 상당수를 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본다면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졸업하는 2년 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엄청난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판사, 검사의 채용 규모나 임용 기준에 대한 다양한 방편들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비단 법률시장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앞길을 개척해나가도록 하는 대안과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다가올 파도에 대비해 유비무환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중대 사안일수록 국민 합의 기다려 주세요"

유순옥 | 50 · 직업학교 이사장 · 광주광역시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 3년차로 접어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게 마련이고, 특히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는 나라일수록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년간 이 정부가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이를테면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 이런 면에서 집권 3년차 정부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정부의 정통성과 연속성이 이어져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일들이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하며 그 타당성을 따져갈 때 정부의 연속성과 정통성이 지켜진다고 본다. 물론 국가의 안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일이거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로 돌아선 사안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리밥이 국민의 건강에 더 좋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쌀밥을 원하면 벼의 수확량을 늘리는 농정을 펴야 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보리밥의 좋은 점을 국민이 이해하도록 전략적으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셋째,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이 철저한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 국가의 정책 중에는 시행착오를 거쳐도 좋은 것이 있고 거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세종시 발전안과 4대강 살리기는 시행착오를 겪을 경우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러한 중대 사안일수록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과 예산을 넉넉히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아무리 급해도 국민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가장 좋은 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안선정 | 16 · 고교입학 예정 · 경기 용인시 죽전동



끝나는 3년과 시작하는 3년. 올 2월, 3년간 정 들었던 경기 용인시 현암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지고에 들어가게 되는 나의 현재 좌표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를 느슨히 할 순 없지만 고교생이 된다는 것은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앞으로 한 걸음 성큼 다가섰다는 말이다. 이제 여지없이 이 악물고 공부해야 한다.

내가 졸업한 현암중학교는 졸업생 1백여 명 모두 얌전한 아이들이다.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같은 것은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볼 수가 없다. 3월부터 다니게 될 수지고는 비평준화지역 학교로, 지원서를 제출한 뒤 중학교 내신과 연합고사 성적을 더해 입학생을 선발했다.

학원, 과외 같은 사교육에 매달리는 아이들도 많지만 나는 지난해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끊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미흡한 공부를 보충해왔다. 요즘은 사설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학 한 과목만 듣고 있다. 국어와 영어는 참고서를 보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혼자 공부하고 있다. 얼마 전 중학교 졸업식에서 모범상, 개근상 등 3개의 상을 받아 내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학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우리 교육제도에 대해 나름의 고민도 있다. 중학생이 된 이후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에 관심을 가져왔다. 학생 처지에서 작지 않은 스트레스다. 요즘 학생들의 사교육이나 대학입시는 주로 엄마들이 챙겨준다고 하지만, 나 같은 맞벌이가정 학생은 엄마가 일일이 챙겨주시기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를 헤쳐가기가 만만치 않다.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입학사정관제 같은 제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하지만 요즘은 굳이 대학 진학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진로 선택을 일찍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 가장 좋은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다. 대학을 가도 부모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공부하면서 힘이 난다. 이 제도를 마련한 이명박 대통령님, 올해도 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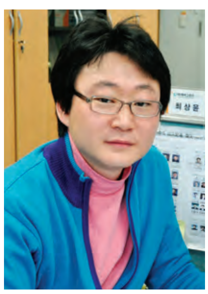


동아DB

정부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해 에너지 절약과 지구 살리기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11월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자전거 타기 행사에는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 필요"

최상윤 | 39 · 회사원 · 경기 안산시 사동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1백 퍼센트 출연해 설립한 경기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서 일하고 있다. 안산시는 일찍부터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가 탄소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기 훨씬 이전부터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추진하는 한편,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숲'을 도심 속에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작은 도시에서 이런 자체적 환경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대 흐름에 발맞춘 국가정책이라는 '병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이는 지구촌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한 흐름을 빨리 읽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생산과 소비는 기후변화 대응과 상반된 관계에 있다. 생산을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는 바로 탄소배출로 이어지고, 편리한 소비는 지구를 더 병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을 국정 기조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자"고 충분히 설득할 수 없다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각 부처가 내놓는 여러 환경정책을 보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일례로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가 가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가정에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 관련 민원과 제안 등을 수렴하는 경기도의 '그린콜센터'나 안산시의 '환경신문고' 등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현실에 좀 더 다가선 정책으로 느껴진다.

환경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동참하기 쉽지 않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실천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후대를 위해 아니 갈 수 없기에 천천히 가더라도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당대에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욕심보다는 대를 이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G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불행을 긍정으로… 한국적 창조력 살리자"

한국의 대표 석학(碩學), 우리 시대의 지성(知性)으로 일컬어지는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를 마라토너에 비유했다. 마라토너에게 출발점, 반환점, 결승점이 있듯이 집권 2주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막 반환점에 들어서고 있다.

"올해는 밀레니엄의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주요 7개국(G7)에서 20개국(G20)으로 세계의 힘이 옮겨가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봐도 전환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2010년을 '꺾어지는 해'로 표현했다. 20세기 초도 1910년부터 '꺾어지는 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비행기가 실용화됐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2000년대에도 9·11테러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그렇게 해서 서구문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시기가 바로 2010년이란 말이다.

그는 사진 촬영에 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진 찍을 때는 왜 꼭 웃어야 하죠? 시거 빼앗기고 인상 쓰는 처칠 총리의 사진은 〈라이프〉지 표지에 실리기도 했잖아요. 요즘 카메라 중에는 웃어야 셔터가 눌리는 것도 있다더군요. 셋이 찍을 땐 셋 다 웃어야 한다나."

이명박 정부 2주년, 새 출발 위한 반환점 돌아

고전(古典)이 된 캐나다 사진작가 유서프 카시의 처칠 사진까지 예로 들며 '인상 쓸 자유'를 주장하는 노(老)지성의 발랄함은 그가 올해 만 76세란 사실을 잠시 잊게 해줬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지지를 얻고 출발한 정권치고는 시작이 좋지 않았어요. 초반부터 악재가 이어졌잖아요. 하지만 점차 스피드가 붙으면서 외교와 경제에서 성과를 냈어요. 특히 해외에서 경제위기 극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알려지고, 마라토너로서 후반 피치를 내야 하는 반환점에 다가서며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 장관은 특히 이 대통령이 세계적 화두인 '녹색성장'을 적시에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환경과 산업을 대립적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보는 녹색성장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단숨에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한국이 통합적 사고로서의 녹색성장을 주창함으로써 새로운 지표를 보여준 셈이죠.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CO_2) 규제에 나섰지만 규제 일변도다 보니 우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환경규제를 경제성장으로 바꿔놓은 발상에 대해 그는 "불행을 긍정으로 역전시키는 우리 민족의 역량이 발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옛날 몽골군이 전 세계를 휩쓸 때 그들이 지나가면 먼지만 남는다고 했지만 우리에겐 팔만대장경이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도 집권 초기 시련과 장애를 안고 출발한 점이 오히려 '한국적 창조력'을 만들어 내는 전화위복이 됐다는 이 전 장

**녹색성장은 북유럽,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한국이 통합적 사고로서의 녹색성장을 주창함으로써 새로운 지표를 보여준 셈이죠.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규제에 나섰지만 규제 일변도라 우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조영철 기자

관의 해석이다.

"사실 녹색성장이란 문명론적 이야기입니다. 서구의 지식경제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발전해왔고, 금융자본주의가 극한에 달하면서 리먼브라더스와 같이 머니게임을 하던 회사들이 파산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파도와 더불어 온 것이 문명의 변화입니다. 산업혁명이나 기술의 한계에 직면해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산업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가 아니라 생명자본주의·자연자본주의로의 전환이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G20 정상들이 서울에 모이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이 전 장관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도자란 노를 젓는 사람이 아니라 배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문명론적 전환기를 맞아 한국의 리더로, 나아가 혼탁한 세계의 리더가 돼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서양 사람들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따라왔으나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외롭고 어려운 항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이 먼저 무릎을 꿇었고,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도, 신자유주의도, 네덜란드의 '제3의 길'도, 유럽연합(EU)의 지역통합주의도 마찬가지다.

이 전 장관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환점을 도는 길목의 마지막 문제가 세종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발전안이 발표된 직후 열린 국가원로자문회의에서 세종시에 대해 '문화적 접근'을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도시 대 도시의 경쟁. 이 전 장관의 눈에 비친 21세기 미래의 모습이다. 현재 지구상의 40대 도시가 세계경제 3분의 2의 부(富)를 창조하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이노베이션의 90퍼센트가 세계 40대 도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 대 도시의 '메가리존' 시대를 대비해 세종시를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도시공학적 모범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래는 도시 대 도시의 경쟁… 세종시 '문화적 접근' 해야

지금은 현실정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솔직한 지적이 필요한 때라고 밝힌 이 전 장관은 "이렇게 초조하게 훈수를 두는 것은 지금이 위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은 13억 인구의 중국, 아시아의 리더 일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새로운 '아시아의 시대'를 맞아 과거처럼 '중국의 아시아' '일본의 아시아'가 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구한말의 한국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경제가 끝나고 지식경제마저 한계에 부닥친 이 시대,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강력해져야 한다고 이 전 장관은 강조했다.

"그러려면 누구와도 앉아서 토론하고, 받아들이고, 또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물이라면 상극인 불까지도 끌어들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물이 불마저도 차를 달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의 창조적 파워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향기롭고 맛있는 차를 끓여 평화의 차, 한담(閑談)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숫자로 본 출범 2주년 이명박 정부

거친 파도 헤치고 '위풍당당 코리아'

지난 2년간 '이명박호(號)'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항로 개척에 힘써왔다. 올해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대한민국의 격(格)을 세계에 드높일 계획이다. 그 뒷받침이 될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성과들을 숫자로 살펴봤다.

▶0.2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정부는 당황하지 않고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운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여줬다. 2008년 2.2퍼센트에 이어 지난해에도 0.2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주요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정책과 경제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6

경기회복이 가시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외환보유액 세계 6위에 올랐다. 2009년 11월 외환보유액은 2천7백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단기외채 보유액 비율은 감소하고 외환보유액은 늘어 다시 경제위기가 닥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65

국민들에게 삶의 기초가 되는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평균 7.65퍼센트의 높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지난 정부 때보다 2.5퍼센트 포인트 정도 상승한 9.3퍼센트의 재고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9월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을 통해 소득수준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18년에는 선진국의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따라잡을 계획이다. 현재 OECD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평균 11.5퍼센트며, 유럽연합(EU)은 평균 13퍼센트로 알려져 있다.

▶7.7

2008~09년 청년실업률은 평균 7.7퍼센트로 집계됐다.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줄이고자 청년인턴제 도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청년실업률 12.2퍼센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35.3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의 40퍼센트,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교역에서 FTA교역 비중이 35.3퍼센트나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남은 2년간 페루,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FTA교역 비중은 83퍼센트에 도달할 전망이다.

▶41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가정보화 정책이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정부 민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민원 신청·발급·열람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는 전년 대비 약 41퍼센트 증가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랐다.

▶62.9

세계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국제 금융이 불안한 가운데 고용률은 2008년 63.8퍼센트에서 2009년 62.9퍼센트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펼치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생들과 만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동아DB







동아DB

동아DB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7백만 명을 돌파했다(사진 오른쪽 위). 한국을 대표하는 술 막걸리(사진 왼쪽) 등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들은 외국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ODA 규모를 확대해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하는 데 기여했다(사진 오른쪽 아래).

▶ 730,000

공부하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힘들었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비 지원이 늘었다. 지난 정부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려 2008년부터 73만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자녀 무료 급식 제공, 유아교육 지원 확대, 특수학급 증설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등 중산층과 서민 자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5,100,000

한식(韓食) 세계화의 일등 공신은 막걸리다. 막걸리를 보급하기 위한 정부의 고급화·다양화 전략 덕분에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5백1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막걸리 시장 역시 전년보다 38.4퍼센트나 증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 7,800,000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7백80만명.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외래 관광객은 -8퍼센트대로 점점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상승해 14.8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국방문의 해(2010~12), G20 정상회의(2010),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2011), 여수 세계박람회(2012) 등 다양한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 1,090,000,000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1퍼센트에 해당하는 10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늘어난 규모. 2015년까지 GNI 대비 0.25퍼센트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 42,700,000,000

2008년에 불어닥친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로 세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듯 세계 경제위기로 세계 교역액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해 상품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 세계 수출순위는 2008년 12위에서 2009년 9위로 세 계단 뛰어올랐고, 지난해 말에는 4백27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 2,127,500,000,000

올해 육아지원 예산은 2조1천2백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4퍼센트가량 늘었다. 정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 제도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81,200,000,000,000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복지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려했다. 올해 책정된 복지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8.9퍼센트 늘어난 81조2천억원.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7.7퍼센트를 차지해 역대 최고다. G

글 · 김민지 기자

사진으로 본 이명박 정부

국민과 함께한 2년

집권 3년차를 맞이해 이명박 정부는 '일로영일(一勞永逸)'을 화두로 삼았다.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면 번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과의 소통'을 잊지 않고 현장을 찾아 다니며 서민들의 마음을 읽었다. 짧지만 값진 지난 2년,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함께한 시간을 청와대 사진기자단의 사진들로 되돌아봤다. 청와대 맞은편 옛 효자동 사랑방을 새롭게 꾸민 청와대 사랑채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2월 25일부터 '국민과 함께 한 2년'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사진전을 마련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글 · 김민지 기자

'녹색성장시대'를 열자!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앞줄 가운데)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2009 창원바이크 월드'에 참여해 창원시 공용자전거인 '누비자'를 타고 도로를 달렸다. _ 2009 · 05 · 03





광장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둔 지난 2월 12일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찾아 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_ 2010 · 02 · 12





"웰빙 음식, 한식 맛보세요" 김윤옥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CNN과 인터뷰하며 크리스티 루 스타우트 앵커에게 "한식은 웰빙 음식"이며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 사상이 배어있다"고 설명했다. _ 2009 · 10 · 16

"힘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 아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노점에서 우거지를 팔던 상인에게 힘내라며 위로해주고 있다. _ 2008 · 12 · 04



한자리에 선 韓美정상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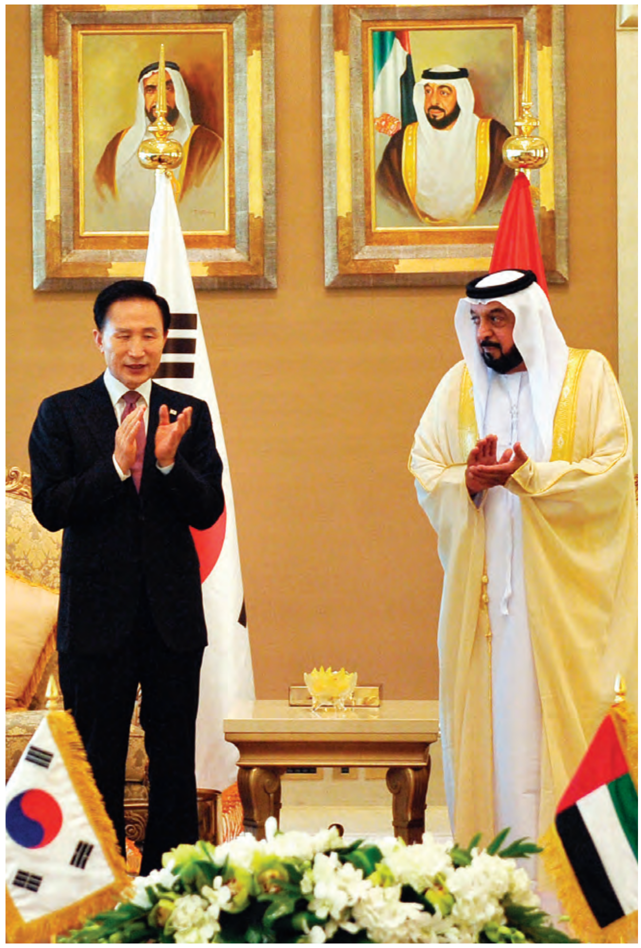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_ 2009 · 09 · 25



“폰카로 동영상 찍어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일정을 마친 이명박 대통령은 취리히행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_ 2010 · 01 · 29





마음을 여는 외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무릎을 맞대며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_ 2009 · 09 · 25

원전사업 협정에 박수를 이명박 대통령과 할리파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수도 아부다비의 에미리트 팰리스호텔에서 경제협력 및 원전사업 계약서 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_ 2009 · 12 · 27

다보스 포럼 "저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홀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_ 2010 · 01 · 29



중국 지진 피해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지진 피해를 본 중국 쓰촨성 두장옌 시내 건물 붕괴지역을 둘러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_ 2008 · 05 · 30



이제 안방극장도 3D 시대

영화 〈아바타〉 열풍과 더불어 3차원 입체영상이 영상업계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영화계뿐 아니라 TV 방송과 위성 DMB 휴대전화, 게임에 이르기까지 〈아바타〉 열풍과 함께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3D 시대의 면면을 들여다보자.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16년 전 기획한 영화 〈아바타〉.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개봉한 〈아바타〉가 3차원(3D) 입체영상이란 기술을 구현하며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영화 역사는 '아바타 이전 영화'와 '아바타 이후 영화'로 구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3D 열풍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아바타 이후 열띤 3D 영화 제작 붐이 일고 있다. 아마존 원주민의 삶을 다룬 TV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은 3D 영화로 다시 제작돼 올 3월 말 극장에서 개봉된다. 〈친구〉로 유명한 곽경택 감독도 새 영화 〈아름다운 우리〉를 3D로 촬영할 예정이다. 이 작품은 2002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남한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 기습공격을 감행해 벌어진 2차 연평해전을 영화화한 것으로 올 연말쯤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3D 붐은 극장에서만 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바타〉의 흥행 성공은 3D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송, 게임 등 전 영역에 걸쳐 3D 붐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3D 방송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로 풀HD 수준의 지상파 3D 방송을 시도한다. 오는 10월 지상파 방송사 KBS와 SBS, 케이블TV 방송사인 CJ헬로비전, HCN, 티브로드, 위성방송 사업자 스카이라이프가 세계 최초 풀HD 3D 방송의 주역이 된다. 정부는 3D 실험방송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3D TV 실험방송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1월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자쇼에 선보인 LG전자의 3D TV.

영국과 일본에서도 3D 방송은 시도되고 있지만 풀HD 수준은 아니다. 또 이를 2D TV 보유자가 시청할 경우 화면이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시도하는 방식은 2D TV 보유자가 방송을 시청해도 문제가 없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기존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채널에 왼쪽 영상을, 다채널(MM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채널에 오른쪽 영상을 실어서 보냄으로써 3D 구현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엠펙투(MPEG2·국제동영상표준화그룹이 디지털 방송을 위해 정한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 전송 표준부호)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한계를 이러한 방식으로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 풀HD 지상파 3D 방송 시도

국내 3D TV 방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산하 '3D TV 방송진흥센터'도 지난 2월 2일 문을 열었다. 3D TV 방송진흥센터는 앞으로 국내 3D TV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D TV 방송진흥센터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연구반 등을 두고 3D TV 실험방송 추진단을 지원한다. 또한 3D TV 방송 관련 분야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일도 맡는다. 기술 규격과 표준 또는 제품 서비스 동향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3D TV 방송 활성화를 위한 대외협력도 진행한다.

3D 입체영상과 관련된 산업계 지원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3D 산업 발전 전략을 만들고 있다. 올 3월 말쯤 안(案)이 나올 예정으로, 지식경제부는 3D 입체영상 촬영 장비와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통신위원회는 3D 방송 지원을 맡았다.

방송사들은 콘텐츠 확보와 발굴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KBS는 3D 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술진, 제작진,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3D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르면 올 10월 완성될 계획으로 3D 효과가 높은 다큐멘터리를 3D로 제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KBS도 SBS와 함께 오는 10월 풀HD 수준의 지상파



영상문화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3D 입체영화 〈아바타〉. 국내에서도 영화와 방송, 게임 등에 3D 붐이 일고 있다.

3D TV 실험방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SBS는 3D TV 방송 확대를 위해 실험방송 사업자 선정에 참여키로 했으며 남아공 월드컵 3D 중계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채널 1번을 통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으로 영상을 합성해 3D 방송을 24시간 송출하는 스카이라이프는 오는 10월부터 6시간 분량으로 3D 방송을 확대한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은 가정에서도 3D TV만 구비하면 기존 HD 셋톱박스를 통해 그대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3D 지상파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으로 실험 송출될 예정이다.

방송사 3D TF 발족 · 제조사 3D TV 제조 박차

제조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해 3D TV 양산을 시작한 LG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올해 40만 대, 내년 3백만 대의 3D TV 판매 목표를 세웠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어지럼증을 최소화한 아몰레드(AMOLED ·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3D TV 기술 개발과 함께 액티브(셔터글라스) 방식의 3D TV를 준비 중이다.

흔히 3D는 화면 구현 방식에 따라 액티브와 패시브로 나뉜다. 패시브 디스플레이는 일반 LCD에 특수 편광필터를 부착해 3D 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디스플레이 가격은 비싸지만 안경은 개당 1만원 정도로 싼 편이다. 반면 액티브 방식은 3D TV의 신호를 받은 안경이 양쪽 렌즈 셔터를 여닫으며 3D 화면을 만들어준다. 기존 LCD 필름을 그대로 사용해 디스플레이 가격은 LCD와 비슷하지만 안경은 비싼 편.

"3D 붐은 극장에서만 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아바타〉를 필두로 영화뿐 아니라 방송, 게임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3D 입체영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월 이후에는 3D TV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판 중인 LG전자의 3D TV는 시제작품인 데다 패시브 방식이어서 가격이 5백만원대에 이를 만큼 비싸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놓을 TV는 가격이 현재 LCD TV와 거의 비슷하거나 20퍼센트 정도 비싼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액티브 방식이라 10만원 정도 되는 안경을 사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마저도 점차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3D TV 보급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에는 3D 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위성 DMB 휴대전화가 나올 예정이어서 TV와 모바일 모두 3D가 가능한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 글 · 문보경(전자신문 통신방송팀 기자)

‘명장의 魂’ 숭례문을 되살린다

중요무형문화재 도편수 신응수 씨

**방화로 훼손된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작업을 이끄는 ‘도편수’로 임명된 신응수 씨는 궁궐과 성곽 등 중요 문화재 복구를 도맡아온 장인(匠人) 중의 장인이다.
그는 철저한 고증에 따른 전통 기법을 활용해 조선 초기의 숭례문을 재현할 계획이다.**



조영철 기자

숭례문 복구 공사의 ‘도편수’로 임명된 신응수 씨는 궁궐, 성곽 등 중요 문화재 1백여 곳에서 복구작업을 지휘한 장인이다.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국보 1호 숭례문 자리에서 숭례문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착공식이 거행됐다.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방화사건이 일어난 지 꼭 2년 만이다. 당시 방화로 2층 문루(門樓)의 90퍼센트와 1층 문루의 10퍼센트가 소실되면서 숭례문이 국보 1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 1층 문루가 거의 온전하고 석축과 홍예문이 훼손되지 않아 국보 1위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년간 고증 등 복구작업을 준비했다.

착공식 행사는 지난 2년간의 복구 준비 경과보고, 착공을 천지신명에게 알리는 의식인 ‘고유제(告由祭)’로 이어졌다. 고유제는 조선왕조의 각종 국가의례 절차를 규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중 좋은 일에 치르는 길례(吉禮) 편의 제사 절차에 근거해 진행돼 숭례문 복구에 두는 의미를 실감케 했다.

착공식은 대목장 신응수(68) 씨의 주도로, 해체되지 않은 숭례문 누각 상단을 가로지른 뼈대인 ‘평방(平枋)’을 주요 인사들이 광목천을 천천히 당기며 해체하는 시연으로 공사의 시작을 알리면서 절정을 이뤘다. 조선 태조 때 지어진 숭례문을 대규모로 개·보수하는 것은 세종 29년(1447)과 성종 10년(1479), 1961~63년 해체 복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 셈이다.

풋내기 목수로 48년 전에도 숭례문 복구작업 참여

숭례문 복구는 2012년 말이나 돼야 끝난다. ‘전통 기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숭례문’을 내세운 문화재청은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재래식 전통 기법으로 진행해 복구의 의미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는 장인과 인부들은 모두 한복을 입는다. 복구를 맡을 5개 분야 장인들은 대목 분야 신응수 씨, 단청 분야 홍창원 씨, 석공 분야 이재순 씨와 이의상 씨, 기와 제작 분야 한형준 씨, 기와 덮기 분야 이근복 씨다.

이들 장인 중에서도 남다른 감회 속에 착공식을 지켜본 이가 바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기능 보유자로 ‘도편수(대목 분야를 총지휘하는 사람)’를 맡은 신응수 씨다. 스무 살 때인 48년 전 풋내기 목수로 숭례문 복구에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편수를 맡아 숭례문과 재회하기 때문이다.

도편수는 숭례문 복구작업의 ‘핵심 장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부터 목조건축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궁궐과 사찰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이 목조여서 도편수의 존재 의미는 컸다.

조선 초기 숭례문을 축조한 대목장 중에는 정5품 벼슬을 받은 이도 있을 정도. 이런 중책을 맡은 신 씨에게 숭례문은 오늘의 그를 있게 한 스승을 만나게 한 곳이다.

충남 병천중학교를 졸업하고 16세 때 상경한 그는 목수 일을 시작한 지 5년째인 1962년 그를 지도하던 이광규 선생의 부름으로 숭례문 복구공사 도편수이던 조원재 선생을 만나는 '행운'을 얻는다. 1962년에 착수된 숭례문 보수공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숭례문이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왓장이 흐트러지는 등 겉보기에도 크게 훼손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수를 지시해 시작됐다. 신 씨는 당시 숭례문 공사를 하는 동안 도편수 조원재 선생의 집에 들어가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전통 기법을 배우게 됐다. 국내 대목장 계보는 1906년 덕수궁 중건과 창덕궁 내전 복구에 참여한 최원식 선생을 1대로, 조원재(2대), 이광규(3대)에 이어 그가 4대째다.

도편수 신 씨는 1975년 수원성곽 복구공사에서 도편수를 처음으로 맡은 이후 경주 안압지 내 건물을 복구했으며, 창경궁과 창덕궁의 주요 전각 보수 정비 공사를 지휘하는 등 1백 건이 넘는 복구작업을 주도했다.

도끼, 큰자귀, 내릴톱 등 전통 도구 사용

복구에 쓸 소나무는 이미 확보했다. 재질이 좋기로 정평이 난 강원 삼척시 미로면 준경묘 일대의 금강소나무 10그루와 국민들이 기증한 소나무 21그루를 들여와 경복궁 부재보관소에서 건조 중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숭례문 문루에 사용된 목재는 모두 13만1천4백93재(材·1재는 3센티×3센티×3백60센티)이며, 이 중 약 36퍼센트인 4만7천6백9재가 화마(火魔)의 피해를 봤다. 이 중 국민기증 등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소나무는 총 2만4천 재에 달한다. 또 지난해 불탄 목재를 조사해 A, B, C, D로 등급을 매긴 결과 재활용할 수 있는 B등급 이상이 33퍼센트로, 1만5천7백여 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목재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는 재목 가운데 불에 타거나 충격을 받았어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때워서라도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옛 장인이 어떤 나무를 쓰고 어떻게 깎았는지, 나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 숭례문 화재가 국가적 불행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와 대목장 계보를 이으려는 제자들에게는 옛 장인들의 숨결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이다.

"사찰이나 궁의 복구공사를 하다 보면 수많은 고증자료를 참고해야 하고 뒤늦게 추가 자료가 나오면 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숭례문은 1962년 중수공사 때 나온 수리보고서와 해당 지자체인 중구청이 펴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등이 있으니 당시 모습을 복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말 숭례문 문루 해체작업이 모두 끝나면 그는 전수 조교, 이수자, 전수 장학생 등 10~20년 경력을 가진 목수 20여 명을 이끌고 치목(治木)작업을 시작한다. 그가 말하는 복구작업의 초점은 조선 초기의 간결미가 특징인 숭례문을 1962년 복구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창경궁이나 경복궁 복구공사에도 전통 기법을 활용한 데 이어 숭례문 공사에도 최신 장비는 거의 쓰지 않는다. 재목을 다듬고 손질할 때는 도끼, 큰자귀(나무를 다듬는 연장), 내릴톱(나무를 세로로 쪼갤 때 쓰는 연장) 같은 전통 도구를 사용하고, 목재를 끌어올릴 때도 전통 운반도구인 거중기를 이용한다.



조형철 기자

지난 2월 10일 숭례문 복구 착공식 첫 순서로 조선왕조 때 국가의례 절차인 '고유제'를 거행했다.

그의 제자들 중 대부분은 창경궁 문정전 복구공사(1985년), 경복궁 강녕전 복구공사(1991~95년) 때도 도끼와 큰자귀, 손대패 등을 주로 쓰는 전통 기법으로 공사를 한 경험이 있다. 이것이 그가 숭례문 복구작업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 씨는 숭례문이 화염에 휩싸인 2008년 2월 10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경복궁 복구공사를 하던 그는 이날도 경복궁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숭례문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처음엔 금세 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각 부분이 삽시에 전소하는 것을 보며 가슴을 쳐야 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복구 현장에 선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숭례문을 복구하겠다며 시민들에게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전통 목재 건축은 '정성' 그 자체로, 대들보에서부터 지붕, 추녀 등을 잇는 모든 부속물들을 못 하나 없이 일일이 손으로 깎고 밀고 올려야 합니다. 장인으로서 그러한 노력과 정성을 숭례문에 쏟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화재 때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 변치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G

글 · 박태해(세계일보 문화부 차장)

구불구불 이어지는 골목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자꾸만 걸어가고 싶은 곳. 어릴 적 기억 속 한 장면 같은 오래된 가게들이 동네 단골손님들을 맞는 곳. 마을버스에 올라타면서 낯익은 이웃사촌들과 눈인사를 건네는 곳.

북촌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간 것처럼 아련한 옛 모습이 남아 있는 동네다. 북촌 주민이 된 지 10년째인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희(52) 씨가 펴낸 책 〈북촌 탐닉〉은 이 동네의 소박하고 은은한 옛 정취에 대한 진한 애정과 이제는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은 우리네 옛것을 오래도록 붙들어두고 싶다는 깐깐한 염려를 담았다.

“북촌의 멋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은 사람 사는 모습이 옛날 그대로 남아 있어서인데 점차 상업화, 관광화하고 있어 제 모습을 잃을까 안타깝습니다.”

옥 씨는 10년 전 북촌 원서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어릴 적 고향 수원의 한옥에서 살던 그에게 한옥집이 많은 북촌이 정겹게 느껴졌고, 운전을 하지 않는 터라 사대문 안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는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책 읽고 글 쓰는 일이 직업인 그에게는 정독도서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었다.

골목골목 새겨진 소박한 정취를 책에 담아

이사 와서 가장 먼저 반한 것은 가지를 친 듯 미로처럼 이어지는 북촌의 골목길 기행이었다. 묵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골목골목을 따라 비탈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발아래로 탁 트인 전망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정겹게 이어지는 지붕들 위로 붉은빛을 던지는 석양이 아름다웠다.



‘북촌 탐닉’ 펴낸 영화칼럼니스트 옥선희

그곳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10년 전부터 서울 북촌에서 살아온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희 씨. 그는 “북촌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가슴속에 품고 있던 북촌 예찬을 책으로 펴낸 그에게서 ‘북촌살이’의 행복에 대해 들었다.



미로처럼 이어진 북촌 골목길을 걷다 보면 소박하고 은은한 옛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사진은 북촌 한옥마을로 가는 골목길 중 하나.

"삼청공원을 지나 서울 성곽길을 걷는 산책길도 좋고, 청와대 옆을 지나 자하문 밖으로 이어지는 코스도 산책하기 좋지요. 중앙고등학교 교정을 지나 창덕궁 후원까지 걷는 길도 참 고와요. 장을 보고 싶으면 통인시장, 종로5가 꽃시장, 명동까지 걸어다닐 수 있고요."

또한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고 뒤로 산을 끼고 있는 데다 골목 안으로 차가 못 들어오는 곳이라 공기가 여간 깨끗하지 않다. 서울 한복판이지만 차 소리가 안 들리고 소음이 없어 집 안에 있으면 절간처럼 조용하다고 한다.

"그뿐인가요. 술집, 여관 같은 유해환경이 없어 아이들한테 좋고 시골 공동체의 분위기가 남아 있어 노인들 살기에도 좋습니다. 북촌을 떠나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북촌 예찬을 전하다 보니 "말로만 하지 말고 책으로 한번 써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동네 주민만이 찾을 수 있는 골목길에 대한 정보,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가게들에 대한 단상에다 '지금의 삼청동 동양문화박물관 자리는 조선시대 정승 맹사성의 집이었는데, 매일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궁궐로 출근했다'는 등의 역사 이야기 등을 꼼꼼하게 모아 책을 펴냈다.

3년 전부터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 집이지만 남는 방 하나에 손님을 재워주고 아침밥을 해주면서 한국을 알리고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일도 북촌에 살기에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다. 보통 일주일 남짓, 길면 3주 정도 묵고 가는 외국 손님들과는 돌아간 뒤 e메일로 안부를 전하는 친구가 되기도 한다. 홍콩에서 한국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다 실연당하고 떠난 청년 브라이언은 옥 씨의 책에 실린 사진들을 찍어줬다.

"산업화 · 관광화로 제 모습 잃어가는 게 안타까워"

옥 씨는 25년째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것 외에 서울 YMCA,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등의 시민단체에서 미디어 비평을 해오고 있다. 1990년대에는 서울 YMCA '좋은비디오숍'을 운영했다. 불법 다운로드가 한국 영화의 부가시장인 비디오산업을 붕괴시키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그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모여 한국 비디오시장을 삼켜버린 것처럼, 하나둘씩 북촌 주택가로 들어오는 상가들로 인해 북촌의 옛 모습이 사라져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북촌이 한옥마을로 지정되고 유명해지면서 집값이 오르자 돈 있는 사람은 한옥을 사서 리모델링한 뒤 갤러리 카페나 파티 장소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북촌을 떠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을 누군가 '강력한 손길'을 뻗어 막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북촌에 살다 보니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공간에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는 기운이 확실히 있다고 믿게 됐어요. 지금까지 망가지고 변한 거야 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이 좋은 환경과 기운을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희 씨는 "이사 와서 가장 먼저 반한 것이 북촌 골목길"이라며 "예스럽고 고즈넉한 멋이 있는 북촌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말했다.

"북촌 홈스테이는 외국 관광객에게는 매력 있는 체험이고, 이들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주민도 많은 것 같은데 서로를 연결하는 게 어려워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식으로 북촌 홈스테이를 활성화하면 좋겠어요."

그는 "오래된 방앗간과 40년 된 목욕탕, 할머니 약사가 약을 지어주는 약국같이 북촌의 풍경을 구성하는 주민 시설은 북촌이 사람 사는 동네로 남아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촌이 총리 공관을 빼곤 온통 카페와 식당, 액세서리 가게가 점령한 삼청동처럼 변할까봐 걱정이다.

"지금까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왔으니 이제는 멈추고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북촌의 매력은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 사는 동네로 남아 있을 때 계속 살아남는 것이지요. 북촌의 예스럽고 고즈넉한 멋과 넉넉하게 안아주는 기운 안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4대강 살리기
제 41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올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운 것 같죠?
그러게요.
휘이이잉
이럴 때는 지중해 휴양지에서 지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머! 데려가 주시려고요?
호호
!
참, 유럽도 지금 유례없는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니
지금 가도 별수 없겠군요.
HOTEL
험험
그럼 여름에 데려가 주세요!
!
와락
파리지앤들이 다 바캉스를 떠나버린 한적한 파리, 생각만 해도 로맨틱한 걸요?
휴가 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센 강변에 누워 여름을 만끽하고…
하지만…!
네?
곧 우리나라에도 그런 강수욕장(江水浴場)이 열린다고 하던데요.
어머, 그래요?
굳이 파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한강이 센 강보다 훨씬 넓고 아름답잖아요?
어머!
설마 유럽 여행 가는데 드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치면 파리지앤들이 한국으로 바캉스 올 겁니다!

파란 눈의 '사이버 독도지킴이' 가브리엘 퓨너리

"독도의 주인은 당연히 한국이죠"





경남 하동 화개중학교 영어교사인 가브리엘 퓨너리 씨가 지난 2월 18일 학교 졸업식날 제자들과 함께했다(왼쪽). 코리아닷넷에 실린 '동해 · 독도 오류시정 국제서한 공모전' 안내(오른쪽).

"독도가 왜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인가? 핵심 질문은 독도에 먼저 '거주(inhabit)'하고 '점유(occupy)'한 나라가 한국이냐 일본이냐 하는 것이다."

가브리엘 퓨너리(48 · 화개중학교 원어민 교사) 씨는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본론에서 A4용지 6쪽 분량으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현재 상황을 균형 있게 뒷받침한다. 1492년 태종실록, 유엔 국제해양법 외에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 미국 하와이대 반 다이크 교수의 주장 등을 다양하게 인용했으며, '1910년 한일합병에 따라 일본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지배가 있기는 했으나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전의 모든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라고 선포됐다'는 게 그가 서술한 요지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서술한 사실과 정황들은 독도가 한국에 속하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퓨너리 씨는 외국인임에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펴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동해 · 독도 오류시정 국제서한 공모전'에서 국내외 응모자 2백30여 명 중 대상을 받았다. 그를 포함한 수상자 60명의 글은 영문 책자에 실려 해외에 배포된다. 경남 하동군 섬진강가 화개중학교에서 영어교사 생활을 한 지 15개월 남짓 된 그가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뭘까.

"아내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 한국 정부의 인터넷 포털인 코리아닷넷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러다 사이트에 연결된 반크 홍보 페이지에서 독도 분쟁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좀 더 연구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독도의 옛 지도, 해양법, 영토 분쟁 사례, 외교 문서, 한일 역사까지도 모두 연구 재료로 삼았어요. 올봄에는 독도에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제약회사에 다니던 퓨너리 씨가 2008년 가을 영어교사로 직업을 바꾸고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아내를 위해서다. 40년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던 아내가 이제는 한국에 돌아가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부부는 한국 땅에, 그것도 섬진강이 바라보이는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화개 마을에 사는 지금이 무척 행복하다. 집 앞에 보이는 쌍계사 앞산 자락에는 벌써 봄기운이 느껴지는 차밭이 펼쳐져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포기해야"

"지난해 참가했던 하동 녹차축제는 외국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차밭에서 야생 차를 따고, 쌍계사에서 차를 마시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멋진 축제입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주말이면 지리산 자락과 하동, 구례까지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경북 구미 금오산과 여수 향일암도 기억에 남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1백여 명의 제자들과도 정이 들었다. 토종 재료로 맛을 낸 갓김치, 냉이국, 부침개 등 좋아하는 한국음식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퓨너리 씨는 여건이 된다면 아내와 함께 한국 땅에 오래 머무르고 싶다고 말한다. G

글 · 최은숙 기자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희망의 땅’ 대한민국 세계 문명사 이끈다

대한민국 다시 읽기

한창수 지음 / **알타미라 · 1만2천원**



부진한 청년취업률과 예전 같지 않은 경제성장률로 ‘한국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8년간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기업 임직원 및 공무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강의해온 한창수 씨다. 그는 ‘끈기’ ‘열정’ ‘믿음’ 이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자신한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성장해온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연구한 안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다시 읽기〉를 펴냈다. 그는 근거 없는 무조건적 희망론을 주장하지 않는다. 명확한 사실들을 토대로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 편의 역전 드라마다. 식민지 침탈과 6·25전쟁 등 갖은 악조건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경험은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저자는 이러한 성취의 기반이 되어준 것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꼽는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온통 강대국으로만 둘러싸인 나라는 없다는 것. 여러 나라가 이웃하고 있는 유럽도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이 뒤섞여 복잡한 경계를 이루는 등 대부분 대등한 나라들끼리 모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 군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다.

> 지정학적 불운이 대한민국의 강인한 정체성을 만들었다.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없으니 힘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끝없이 배우고 노력한 결과 첨단 IT 국가로 불리며 세계 문명사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역전 드라마’… 미래는 밝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정학적 불운이 대한민국만의 강인한 정체성을 만들었다.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없으니 힘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끝없이 배우고 목표를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형적인 농경국가이던 한국은 오늘날 첨단 IT국가로 불리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IT 기업이 여럿이고 인터넷 접속률, 휴대전화 보급률 등은 세계 1, 2위를 다툰다. 산업화의 후발주자이면서도 이처럼 경이적인 성장을 일궈낸 원동력은 바로 ‘배움’을 통한 ‘노력’이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아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일본의 도움을 받으며 힘을 키웠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한계를 느낀 삼성전자가 품질경영과 구조조정에 나섰다. 일본을 열심히 뒤쫓은 결과 2009년 2분기에 삼성전자는 2조5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으나 소니는 3천억원 이상 영업손실을 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

저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 스포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국과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문열, 김지하 등 한국의 대표 논객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특징도 함께 실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밝고 희망차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희망을 행복과 연결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길 때 그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동안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이제 남은 50년은 세계 문명사를 이끌어갈 우리나라를 기대할 만하다. 무수한 역경을 이겨낸 한국의 저력을 믿고 ‘희망의 스위치’를 켜두자. G

글 · 김민지 기자

건강 그리고 행복

글과 그림 · 최영순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반문해야만 우리의 인생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칼 힐티(스위스 사상가)

유럽 모던아트에서 미국 현대미술까지 한자리

모네에서 피카소까지

일시 3월 28일까지 오전 11시~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9시(2월 22일 휴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관람료 일반 1만3천원, 청소년 9천원, 어린이(만 4세 이상) 7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천원
문의 02-521-7357 www.sac.or.kr


모네 '앙티브의 아침'


피카소 '여인과 아이들'

2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의 걸작들이 한국에 선을 보여 화제다. '모네에서 피카소까지'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우리나라 관람객이 가장 좋아하는 유럽 대가들의 작품 96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필라델피아미술관이 소장한 25만 점의 컬렉션 중에서 선정된 것이다.

전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네로 대변되는 인상주의 화풍에서부터 피카소로 대표되는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까지 1백50여 년에 걸친 유럽 모던아트의 대장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르누아르의 '르그랑 양의 초상', 반 고흐의 '데이지 꽃이 있는 정물', 드가의 '발레 수업', 모네의 '앙티브의 아침',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 마티스의 '노란 옷의 오달리스크', 브랑쿠시의 '더 키스(The Kiss)', 샤갈의 '한밤중', 피카소의 '여인과 아이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금붕어가 있는 정물'은 놓쳐선 안 될 작품들이다. 이들은 근현대 서양미술사의 주요 맥락을 잇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피사로의 '퐁네프의 오후 햇살'은 빛이 만들어내는 황홀함과 부드러운 선으로, 후안 그리스의 '체스판 글라스 접시'는 명암을 살린 기하학적 구성으로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전시는 인상주의에 영향을 끼친 코로와 쿠르베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코로는 야외에 나가 눈으로 보면서 그리는 것을 즐긴 작가로, 그의 자유분방한 색채와 거침없는 붓놀림은 인상주의 화가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작품 해설을 맡은 임병준 큐레이터는 "장르별, 시대별로 작가의 붓질과 색채를 살피다 보면 미술사조의 흐름과 인상주의가 왜 현대미술의 뿌리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특별 기획전 '컬렉션, 미술관을 말하다'

일시 2월 28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요일 오후 8시까지
3월 1일~9월 30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9시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3~6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2188-6000 www.moca.go.kr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각 분야의 중요 컬렉션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소장품 특별 기획전. 1969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회화, 한국화, 조각, 사진 등 총 10개 장르 6천4백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백여 점을 장르별로 나눠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국민화가인 이중섭과 박수근, 한국 현대 추상의 대표작가인 김환기와 유영국, 한국화의 대가인 이상범과 변관식 등의 작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안은미 무용단의 '심포카 바리 저승편'

일시 2월 25~27일 목·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장애인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전화예매 시 적용)
문의 1644-2003 www.mct.or.kr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춤으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안은미 무용단이 2007년 공연한 '심포카 바리 이승편'의 완결편. 34년 만에 연극 전문극장으로 재탄생한 서울 명동예술극장이 복원 1주년을 맞아 무대에 올리고 있는 '명인열전'의 하나다. '바리데기' 설화를 소재로 무속전통에 바탕을 둔 예술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올해 열리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발에 공식 초청받은, 공연계의 기대작이다.

더 좋은 세종시

모든 지역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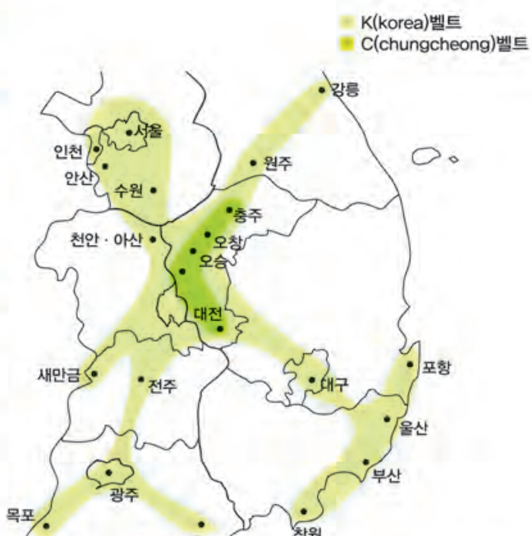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산과 국토 발전에 효과가 큰 대기업과 대학이 입주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오는 과학기술과 창의적 인재는 다른 지역과 교류하며 확산돼 전체 국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기업도시 · 혁신도시도 차별없이 지원합니다

세종시 인센티브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근 지역과 함께 하는 세종시 성공 모델은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분권 · 특화 · 상생의 원칙으로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완성해 일류선진국가로 도약합시다

광역경제권 사업에 올해도 4조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기초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경제권은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서울 · 과천 · 대전 · 세종시로 나누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를 도약의 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미소 코리아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서민 곁에도 아름다운 미소가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 지금 미소금융에서 만나보세요

NAVER 미소금융 ™

스마일 어게인

희망을 빌려주는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 프로젝트

신용도가 낮아도 자활의지가 있으면 희망을 빌려드리는
미소금융으로 이제 더 많이 웃으세요

신청자격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smilemicrobank.or.kr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 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 **미소금융이란?**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일환으로 전국 미소금융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민금융 프로젝트입니다

종 합 안 내 센 터
1600-3500

미소금융중앙재단
SMILE MICROCREDIT BANK